

보 험 동 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저축률의 변화를 통해서 본 내수 불황 평가와 시사점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금융통합법 : 법제화 방안의 현황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제정

예금보험요율제도의 현황과 주요국 비교

FY200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 동향

은행계 보험회사 진출동향

◆ 해외보험동향

미국, 일본 변액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중국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저축률의 변화를 통해서 본 내수 불황 평가와 시사점	1
보험산업 개관	9
보험산업 환경	12
1. 해외 경제	12
2. 국내 경제	14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16
보험지표동향	18
1. 보험산업 총괄	18
2. 생명보험	21
3. 손해보험	32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43
1. 금융통합법 : 법제화 방안의 현황	43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제정	48
3. 예금보험요율제도의 현황과 주요국 비교	52
4. FY200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 동향	56
5. 은행계 보험회사 진출동향	62
해외보험동향	63
1. 미국, 일본 변액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63
2. 미국 동향	74
3. EU 동향	79
4. 일본 동향	84
5. 중국 동향	89
통계표	92

테마진단

◆저축률의 변화를 통해서 본 내수 불황 평가와 시사점*

이 태 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

1. 저축행태에 대한 논의 배경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험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배경과 특징을 가계의 저축 행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파악해보고자 함.

- 최근 내수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의 반대 개념 또는 가계 경제의 여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저축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 경제는 전통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투자 자금의 공급처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소비보다는 저축이 미덕이었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비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계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됨.
- 특히, 최근에는 수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극심한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경제 여건과 더불어 소비 및 저축 행태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계 경제의 저축 행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내수불황으로 수요가 악화되고 있는 보험 수요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함.
- 가계의 저축 행태와 관련하여 본고는 국민계정의 총저축, 자금순환의 개인금융자산 그리고 도시가계조사의 흑자 등 크게 3가지 개념의 저축 지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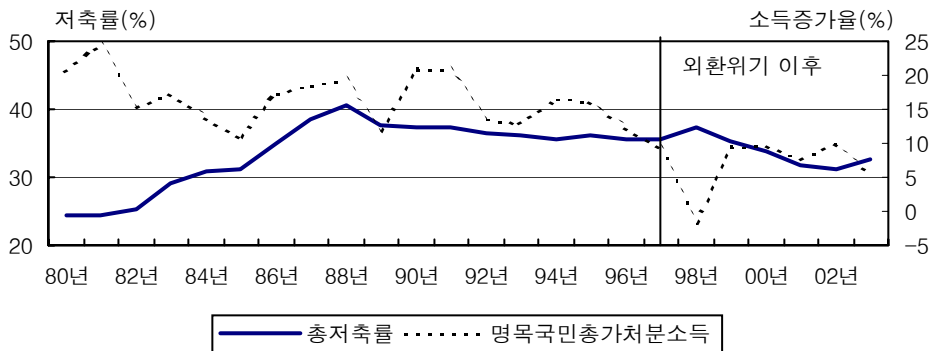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힘.

2. 총저축률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중 개인부문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저축률과 소비증가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비가 경기 순환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득 증가율과 저축률이 반비례하는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음.
- 총저축률은 8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면서 1988년에는 40.5%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에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어 2003년에는 32.6%까지 낮아짐.
- 소득 증가율과 저축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저축률이 소득증가율과 반비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가 오히려 경기 변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2).
-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2000년, 2002년에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득증가율이 낮았던 1988년, 2003년에 저축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1> 총저축률과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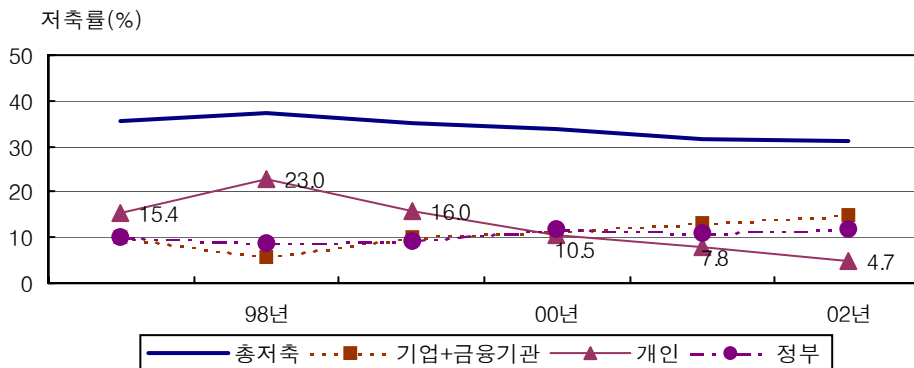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이는 소득여건이 악화될 때 소비를 축소시키고 반대의 경우 증대시킴을 의미함.

- 총저축의 구성에서 개인저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 저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개인저축률은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소득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더욱 크게 축소하면서 큰 폭 상승했으나, 이후 경기 회복과정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기업 및 금융부문은 투자 감소에 따른 잉여자금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 부문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의 꾸준한 확대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개인부문 저축률의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저축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국민계정 자료인 만큼 자산 소득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여 제각각 저축률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경제주체별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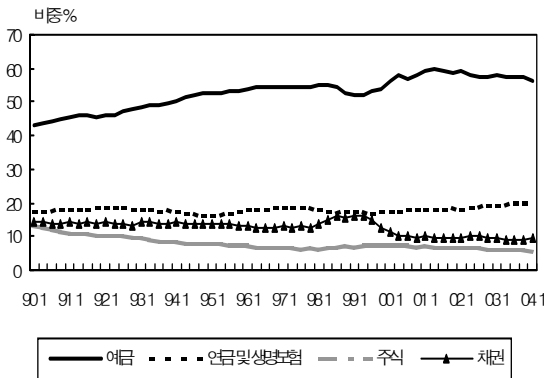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금융자산의 구성

개인의 금융자산 중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령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등의 영향으로 타금융상품에 비하여 선호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금융자산 중에서 보험 자산 비중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권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면서 그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보험의 비중은 채권과 반비례하면서 대체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완만하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³⁾.
 - 채권은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현상과 함께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9~1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예금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2001년까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약 60%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주식은 금융시장 발달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금융자산 자료는 기본적으로 축적된 저장(stock)의 개념으로 유량(flow)의 개념인 저축과는 다른 것은 사실이나, 비중 변화의 추이를 통해 볼 때 보험이 자산선택에 있어서 그 상대적인 선호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달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금융자산의 비중 추이



주 : 예금에서 통화 및 통화성예금은 제외함.
자료 : 한국은행

<표 1> 자산 비중 및 상관계수

금융 자산	비중 ('04 1/4)	상관계수 (with 연금 및 생명보험)
연금 및 생명보험	19.7	1.00
예 금	56.1	0.30
채 권	9.4	-0.65
주 식	5.7	-0.28
기 타	9.1	-0.13
전 체	100.0	-

주 : 자산별 비중 간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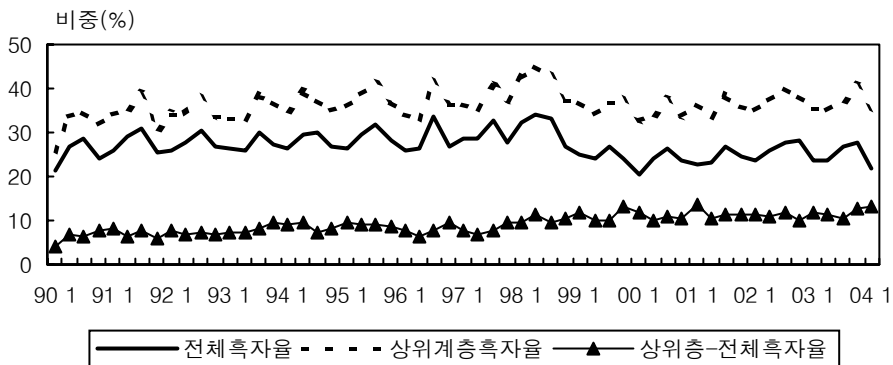
3) 채권 중에서도 특히 장기채권과 반비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도시근로자 가계의 흑자율

도시근로자 상위30%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보수적인 가계운영으로 흑자(저축)규모가 전체근로자 가구의 3/4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불황기에는 소비를 축소하고 오히려 저축률을 제고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수 경기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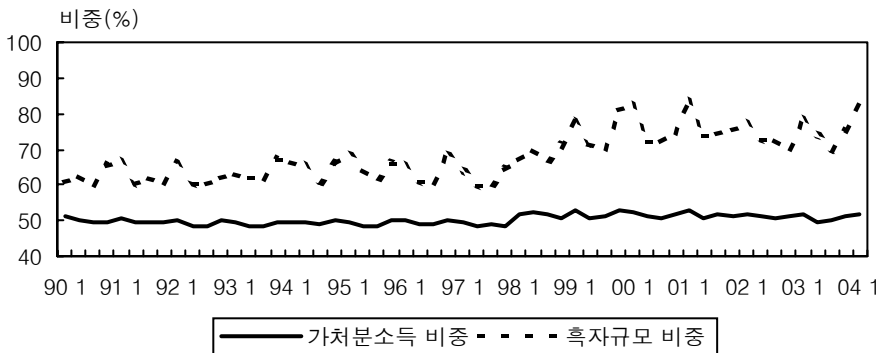
- 도시근로자 상위소득 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저축률을 꾸준히 상승시키며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고 있음.
-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의 흑자율은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다시 소비지출을 차감하면 흑자가 도출됨. 따라서 저축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text{가처분소득} = \text{소득} - \text{비소비지출}$, $\text{흑자} = \text{가처분소득} - \text{소비지출}$
- 외환위기와 함께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도시근로자가계의 저축률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상위30% 소득계층의 경우는 흑자(저축)율을 다시 회복하여 2000년 이후에는 35% 상회하면서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복귀함.
 - 따라서 상위계층의 흑자율과 전체 평균 흑자율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10%p 이상으로 확대됨.

<그림 4> 상위계층과 전체평균 흑자율의 추이 비교



- 외환위기 이후 상위계층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소득보다 흑자 또는 저축규모에 있어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도시근로자 가계의 상위 3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49% 전후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1% 수준으로 약 2%p 확대됨.
- 반면, 소득격차에 저축률의 격차 확대까지 가세하면서 전체 도시근로자 가계의 흑자(저축)규모 중 상위 30%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약 63%에서 이후에는 약 3/4에 해당하는 74%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2004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30%의 흑자규모가 전체의 83%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상위 소득계층은 상대적인 소득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흑자율을 동시에 상승시킨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가계 저축에서 상위 계층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됨.

<그림 5> 상위계층의 소득과 흑자에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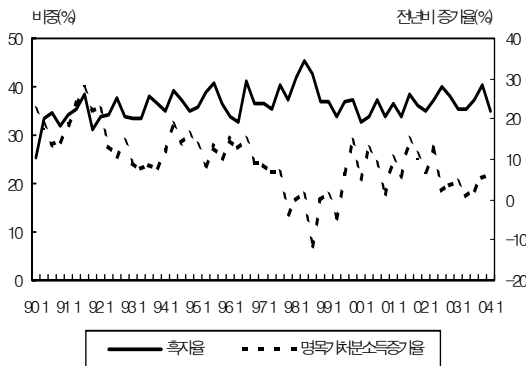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상위 계층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을 때 오히려 소비를 축소하고 저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 내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시근로자 가계에서 상위 30%의 저축률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목 가처분소득증가율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상위 30%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흑자율과 명목가처분소득증가율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0.39로 나타나 반비례 관계임이 확인되고 있음.
- 소비지출에서 내구재가 포함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현상일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내구재가 대거 포함된 '개인교통', '교양오락용품기구',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 가사용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비지출을 산출한 다음 다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도 여전히 반비례관계로 나타남.
- o 다른 소득계층의 경우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거나(중위계층) 정비례(하위계층)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앞서 총저축률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된 우리나라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축률과 소득증가율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상위계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의미함.

<그림 6> 상위계층의 흑자, 소득 추이



자료 : 통계청

<표 2> 소득과 흑자율의 상관관계수

구 분	상관계수	t-값
전 체	-0.17	1.55
상위 30%	-0.39	3.68
중위 40%	0.03	0.31
하위 30%	0.37	3.81
내구재제외 전체	-0.11	0.97
내구재제외 상위	-0.21	1.95

주 : 명목가처분소득증가율과 흑자율의 상관관계수

5. 시사점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상위계층으로의 저축여력 집중이 마케팅 역량의 집중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근본적으로 내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소비성향을 자극할 대안 모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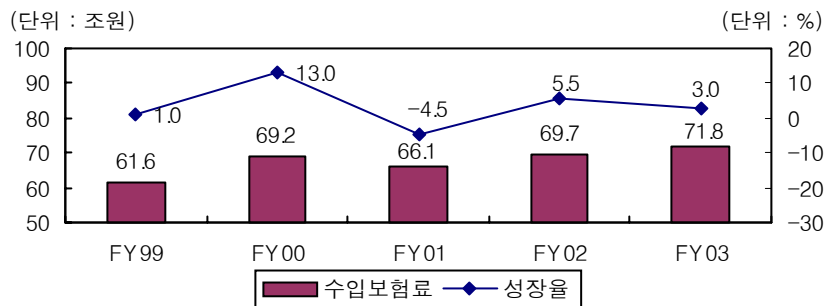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위 계층으로의 저축여력 집중과 보험 상품에 대한 꾸준한 선호도 증가 등에 대해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도시근로자가계에서 상위 30%의 흑자규모가 전체 도시근로자 가계 흑자 규모의 약 3/4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험 등 금융 상품의 마케팅 전략이 이들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
 - 통합형 보험, 변액 연금, 일시납 연금 등 상위 소득계층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반면, 하위 계층의 경우 저축 여력의 부족으로 관련 수요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적보험과의 보완 관계 수립, 단체 보험의 활성화 등 다른 측면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불황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위 계층의 보수적인 가계 경제 운용은 내수 불황의 극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한 소비 확대 유도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것임.
 - 상위 소득계층은 불황기에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소비를 더욱 감소시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수 불황의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내수 불황의 지속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소비 및 저축 여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상위계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유용할 것임.
 - 불황기에 상위 계층이 보수적인 입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비 유인책을 강구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보험산업 개관

FY2003 보험산업은 시장 포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보험침투도는 3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손해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성장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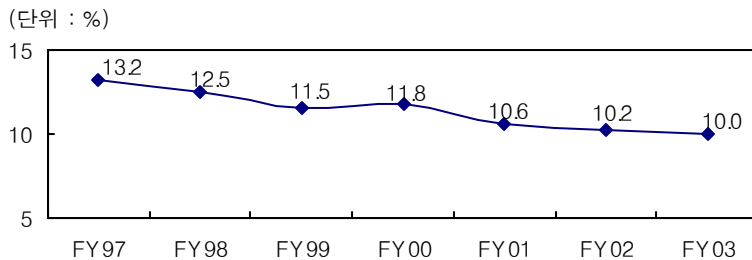
-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0% 성장한 71조 7,668억원으로 생명보험은 2.7% , 손해보험은 3.8% 성장함.

<그림 1>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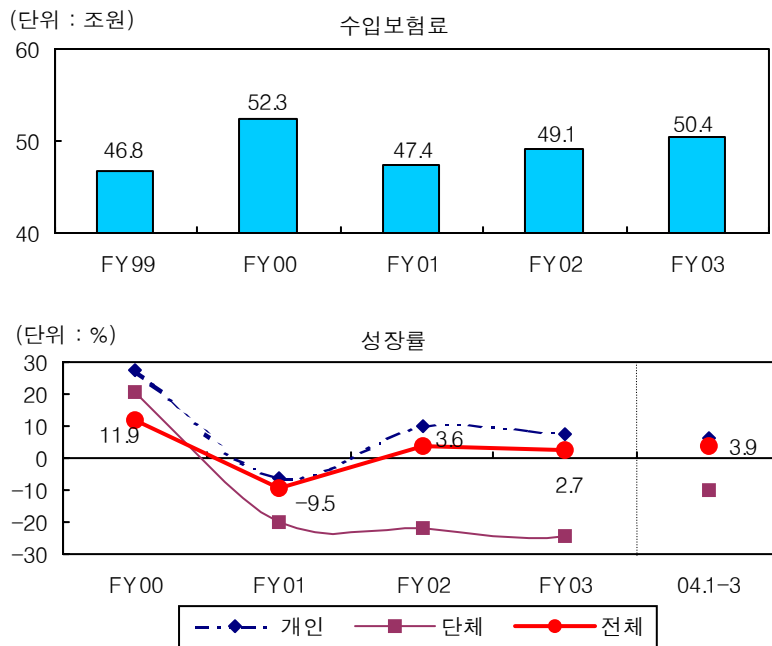
- FY2003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경상경제성장률 5.4%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2> 보험침투도 추이



- FY2003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시행 후 일시납 보험의 증가와 노후보장 니즈에 대응한 생존보험의 급성장(31.7%)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침체로 2.7% 성장에 그침.
- FY2003 수입보험료 규모는 50조 4천억원으로 FY2000의 52조 3천억원을 3년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일시납 보험 중심의 방카슈랑스실적을 제외할 경우 FY2003 수입보험료 규모는 47조 9천억원에 불과해 FY2002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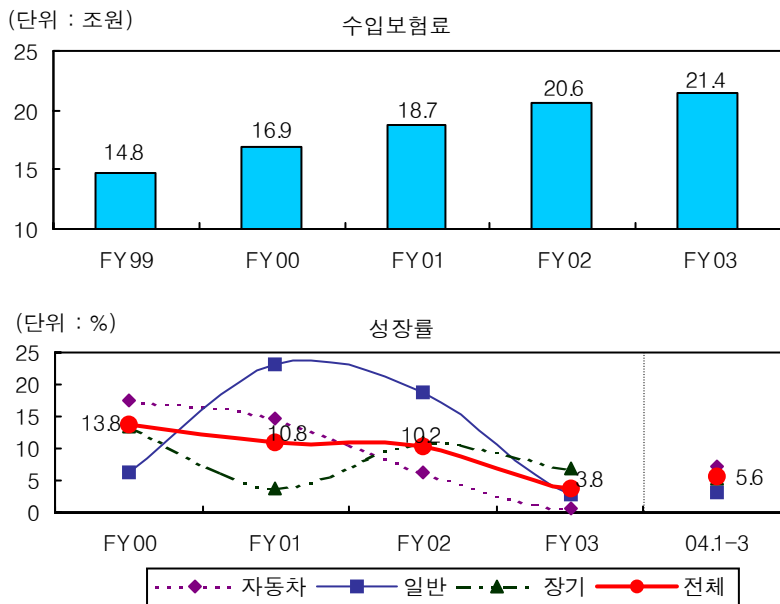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 최근 신계약액 감소, 효력상실해약액 증가 등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여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수요 부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방카슈랑스 시장도 도입 초기와 같은 추가시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보시장은 침체 국면이 예상됨.

- FY20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내수부진에 따라 자동차, 일반, 장기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8% 성장에 그쳤음.
- 특히, 자동차 보험은 시장의 포화 현상과 더불어 보험료 인하 경쟁 등으로 과열되면서 사실상 제로성장인 0.6%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4>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 하반기 손해보험 시장은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도 보험료 인상에 따른 원수보험료의 회복세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은 FY2003 하반기부터 전년도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으로 성장세가 소폭 회복되고 있으며,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부문에 대한 수요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일반손해보험은 FY2003 보험요율 인하 조정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시작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 경제 호전을 반영하여 국제 금융 시장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2003년 이후 미국과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본의 회복세도 견조한 반면, EU 경제의 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
- 미국 경제는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4.4%에 이르고 있음.
 - 2004년 1/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116.9로 나타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음.
 -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04년 1월 이후 5.6%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별 다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반면, 물가 압력은 높아져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2.3%로 나타나 2, 3월의 1.7%보다 크게 높아짐.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4년 1/4분기 10%에 육박하고 있고 고정투자 증가율이 40% 전후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투자 억제를 통한 경기 조절에 나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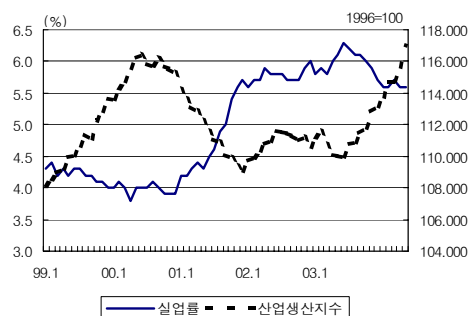
<표 1> 주요지역 성장률 추이

(전기 대비 연율 %)				
	2001 연간	2002 연간	2003 연간	2004 1/4
미 국	0.5	2.2	3.1	4.4
EURO	1.6	0.9	0.5	0.6
일 본	-1.2	1.2	2.5	1.4
중 국	7.3	8.0	9.1	9.7

주 :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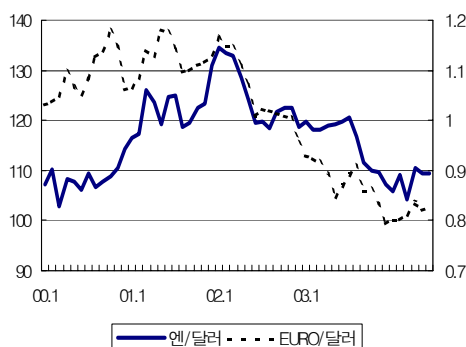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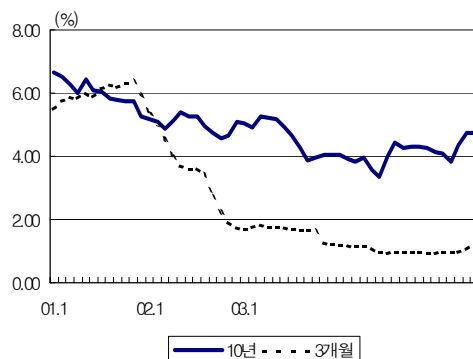
- 일본 경제는 2002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공업 생산 증가율은 2003년 9월에 플러스로 반전된 이후 2004년 3월에는 7.7%에 이르고 있음.
 - 장기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EU 경제의 경우 독일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등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세계 금융시장은 실물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 호조 및 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4월중 강세기조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횡보하고 있는 상태임.
 - 엔/달러는 3월평균 104.25에서 4월평균 110.52로 상승한 이후 11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유로는 같은 기간 0.811에서 0.835로 상승(유로/달러 1.233에서 1.198로 하락)한 이후 0.82~0.83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음.
 - 미국 경기의 회복 지속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금리가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10년 만기와 3개월만기 재무성 채권수익률은 각각 3월 평균 3.83%, 0.95%에서 5월 평균 4.72%, 1.04%로 상승하였으며, 6월 14일에는 4.72%, 1.29%에 이르고 있음.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6월은 22일지표 사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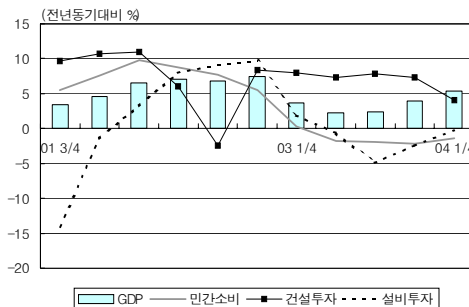
주 : 6월은 14일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우리 경제는 수출 급증과 내수 부진이라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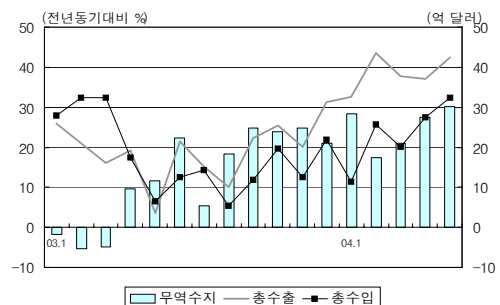
-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급증세로 2004년 1/4분기 경제 성장률은 2003년 4/4분기의 3.9%에서 5.3%로 상승함.
- 2004년 1/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4%, -0.3%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도 4.1%(2003년 4/4 : 7.4%)로 하락하여 내수 경기의 부진 심화가 우려됨.
 - 설비투자는 평균가동률이 2003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건설투자는 건축수주 규모가 2004년 들어 20% 이상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내수 경기의 추가 하락이 우려됨.
- 수출은 2004년 들어 평균 40% 전후의 급증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생산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수입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으나 수출 급증에 따른 무역 수지 확대로 5월 흑자 규모는 월간 실적으로 1999년 이후 최대치인 32억 3천만 달러에 이름.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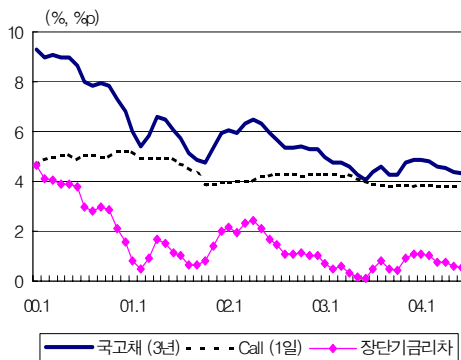
<그림 5> 형태별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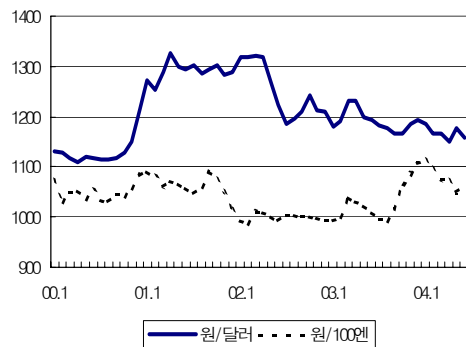
- 경기부진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5월 중 일시적인 약세를 보인 후 전반적인 강세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 금리는 내수 경기 부진에 따라 국제 금융 시장의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단기금리는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화 당국이 불황을 감안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2003년 6월 이후 1년 이상 3%대를 유지하고 있음.
 - 장기금리가 시중 자금 수요 감소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는 2004년 2월 평균 1.01%p에서 5월에는 평균 0.62%p 그리고 6월 23일에는 0.54%p로 축소됨.
 - 원화 환율은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 완만한 강세기조를 보이다가 5월 중 중국쇼크와 함께 일시적인 약세 현상이 발생했음.
 - 원/달러 환율은 2003년 12월 평균 1192.95에서 전반적인 절상기조를 보여 4월 평균 1159.85까지 하락했으나 5월 중국 쇼크와 함께 평균 1177.37까지 상승한 이후 6월 중 1150 수준으로 재하락했음.
 - 원/엔의 경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11:1의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5월부터 약 10.5:1의 수준으로 조정됨.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주 : 6월은 22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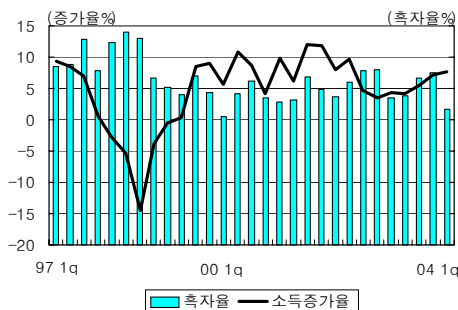
주 : 6월은 22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가계 경제 여건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가운데 2004년 1/4분기 시중 자금은 투신사로 이동하면서 단기화하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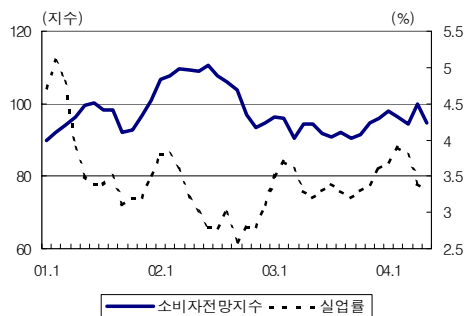
-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회복세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완만하게 상승하던 소비심리도 5월 들어 중국쇼크 등 대외 악재와 내수불황 지속에 대한 우려로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가구의 경상 소득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 7%까지 상승했으나 조세 및 공적보험 부담의 빠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 여건은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2004년 1/4분기 경상소득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7.6%로 나타났으나 조세 등 비소비지출의 부담이 20.6%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증가율은 6.0%에 그쳤음.
- 따라서 소비자물가상승률(3.3%)을 감안할 경우 실질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2.7%에 불과함.
- 소비자 전망지수는 4월 조사에서 100 가까이 상승했으나 5월 중 중국 쇼크와 함께 94.8까지 하락했음.
-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으로 3.3%로 낮아졌으나 전년동기 대비 0.1%p 높은 수준임.

<그림 8> 소득,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 2004년 1/4분기(FY2003 4/4분기)중 시중자금은 주식시장 호조와 저금리에 따라 투신사로 유입되었으나 자금의 만기가 단기화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보험은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실적의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순수신이 크게 줄었고,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의 증가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03년 4/4분기(FY2003 3/4분기)부터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순수신 규모가 크게 감소함.
 - 1/4분기 중에는 저금리 현상과 주식 시장 호조가 나타나면서 시중자금이 투신권으로 약 17조원이나 유입되어 2003년 4/4분기에 유출되었던 17조 8천억원이 대부분 재유입됨.
 - 그러나 투신사의 경우 14조 6천억이 MMF로 유입되었고, 은행의 일반 계정의 경우 저축성에서 4조 5천억원이 유출된 반면 요구불예금에는 1조 2천억이 유입되어 시중자금이 단기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보험산업의 환경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불황과 가계 경제 여건의 가시적인 회복 지연으로 불황 국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2002	2003				2004
	4/4	1/4	2/4	3/4	4/4	1/4
보 험	76,573	45,805	50,356	47,189	88,743	48,649
생명보험	62,076	30,629	34,893	34,893	74,824	37,604
손해보험	14,497	15,176	15,443	12,296	13,919	11,045
은 행	138,510	23,484	73,895	-30,594	189,814	-67,109
일반계정	140,221	45,937	144,380	1,512	221,476	-11,707
신탁계정	-1,711	-22,453	-70,485	-32,106	-31,662	-55,402
증 권	-2,879	35,535	-2,503	-6,525	5,843	-5,145
투 신	-2,159	-80,618	-90,539	63,286	-178,020	170,435
총 금	-2,463	24,512	-61,400	-21,375	-38,056	-55,402

주 : 1) 보험회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3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신채널에 의한 수요창출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기조가 나타남.

- FY2003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손해보험 또한 큰 폭의 성장세 감소가 나타나면서 71조 7,668억원을 기록했음.
-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생존보험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의 감소로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2.7%의 저조한 성장을 함.
-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저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자동차보험은 소폭의 성장,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3.6	3.6	-1.4	0.7	6.5	3.9	2.7
손해보험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7.4	10.2	3.4	2.6	3.6	5.6	3.8
합 계	165,782	696,614	165,167	167,527	211,837	173,136	717,668
	4.7	5.5	0.04	1.3	5.7	4.4	3.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3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 14.1%, 손해보험 9.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함.

- FY2003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226조 1,844억원을 기록, 연초부터 200조대를 넘어서면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전년 대비 13.3% 증가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187조 3,615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와 연중 금융시장의 상승세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로 전년 대비 14.1%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원수보험료의 성장둔화와 발생손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38조 8,229억 원으로 성장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종목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642,225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0.6	14.8	3.1	2.9	5.2	2.3	14.1
손해보험	353,683	353,683	361,677	369,919	378,639	388,229	388,229
	0.4	8.1	2.2	2.3	2.4	9.8	9.8
합계	1,995,908	1,995,908	2,054,220	2,111,131	2,211,018	2,261,844	2,261,844
	0.6	13.6	2.9	2.8	4.7	2.3	13.3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FY2003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의 저성장에 따라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9만 7천원이며, 보험침투도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한 10.0%를 기록함.

- FY2003 국민 1인당 보험료와 보험침투도는 인구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증가에 대비한 전체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2.4% 증가와 0.2%p 감소하였음.
- FY2003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05만 1천원, 손해보험이 44만 6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49만 7천원에 이르러 FY2002 대비 2.4% 증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FY2003 보험침투도는 GDP의 성장(추정치)이하의 생보산업의 소폭 성장으로 인하여 FY2002 대비 0.2%p 감소한 10.0%를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0.2%p 감소한 7.0%를 시현함.
 - 손해보험의 경우 FY2001이후 정체로 3.0%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연도		FY1997	FY1998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구분	1인당							
	보험료							
	(천원)							
	생보	1,065	1,002	1,003	1,113	1,001	1,030	1,051
	손보	347	305	308	349	394	432	446
	계	1,413	1,308	1,311	1,461	1,395	1,462	1,497
	보험							
	침투도							
	(%)							
	생보	10.0	9.6	8.8	9.0	7.6	7.2	7.0
	손보	3.3	2.9	2.7	2.8	3.0	3.0	3.0
	계	13.2	12.5	11.5	11.8	10.6	10.2	10.0

주 : 1)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명목GDP임(2003년은 추정치임).

2) 한국은행의 GDP계산방식과 기준년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거수치를 변경함.

3)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추계인구(2001년 11월 개정)

자료 : www.bok.or.kr(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www.nso.go.kr(통계청, 추계인구)

(김진익 선임연구원)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3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50조 3,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개인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후 일시납 보험의 증가와 노후보장 니즈 증대에 대응한 생존보험의 성장(31.7%)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침체로 7.6% 성장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복지성 보험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24.5% 감소한 5조 6,763억원을 시현함.
- FY2003 총자산 규모는 187조 3,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함.
- 보유계약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와 증시상승에 따른 투자이익 증대(14.9%) 등으로 견실한 성장을 했으나 전반적 성장세는 감소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자 산	1,642,225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0.6	14.8	3.1	2.9	5.2	2.3	14.1
수입보험료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3.6	3.6	-1.4	0.7	6.5	3.9	2.7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전분기(총자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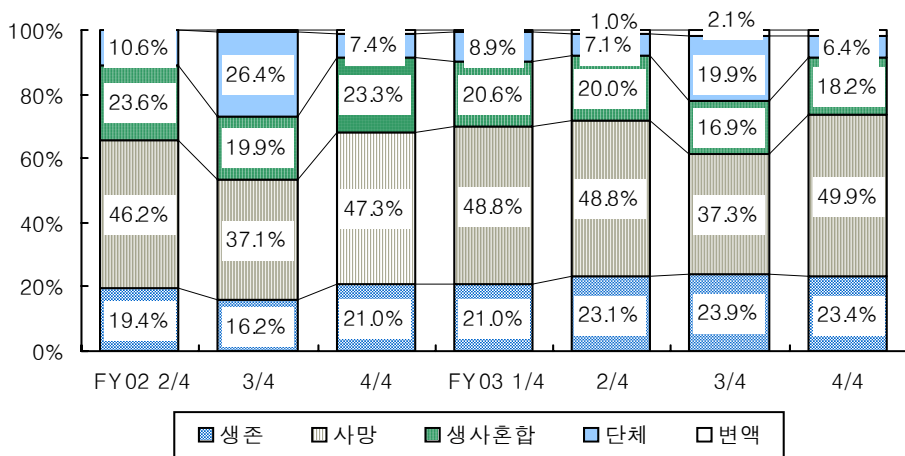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의 연평균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생존보험 23.0%, 생사혼합보험 18.8%, 단체보험 11.3%순으로 나타남.
- FY2003은 사망보험의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과 배당 저축성보험이 크게 감소하여 상품구성의 편중화 현상을 보임.
 - 사망보험은 변액보험을 포함한 종신보험의 꾸준한 증가로 특히 4분기 실적 구성비가 거의 50%에 접근함.
 - 생존보험 또한 최근의 노후소득 대비의 니즈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5% 증가하여 구성비가 23%대로 상승함.
-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42.7%를 넘어서고 금리연동형보험이 35.5%에 달하면서 보험리스크 관리 추세와 금리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보험종목별로 종신보험 비중이 20.5%를 넘어서면서 질병보험(16.9%)을 앞질렀으며, 또한 지난해 0.4%에 불과했던 변액보험 비중이 1.5%로 상승했음.
 - 변액종신보다 늦게 도입된 변액연금의 비중이 0.9%로 변액종신 0.5%를 앞서 금융형 상품의 선호가능성이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조 7,161억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3/4분기 급격히 증가한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을 제외할 경우 1.7%증가에 그쳐 최근 저성장기조가 반영됨.
-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22조 9,359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었으나, 이는 FY2002 증가율 21.4%와 비교할 경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임.
 - FY2003 사망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12.7% 감소하는 등 신계약 감소에 따른 성장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나, 반면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43.2% 증가하였음.
 - 또한 종신보험의 2차년도 이후 보험료는 88% 증가하여 종신보험의 성장은 보유계약의 유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줌.
- 방카슈랑스 개방상품이 포함된 생존보험은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3/4분기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방카슈랑스의 일시납 연금보험 급증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FY2003 방카슈랑스에 의한 연금보험의 초회보험료는 70.5%를 넘으며, 이 비율을 적용하여 방카슈랑스 실적을 제외할 경우, 7.6%의 저조한 증가에 그침.
- 단기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인 생사혼합보험은 단기 금리관리에 부담을 느낀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에 대한 지속적 축소 정책으로 3/4분기 일시적 호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14.4%)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실적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더 커짐(20.6%).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FY2002 21.6%, FY2003 24.5%의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침체의 지속에 따라 각 기업들이 후생복지 차원의 일반 단체보험 가입을 줄이고(-34.2%), 또한 퇴직보험 수요도 감소(-18.9%)하였기 때문임.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의 증가를 분석하면, 장기건강보험이 37.4% 증가했으며, 변액종신보험이 25.8%, 종신보험 24.5%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이 8.9% 감소하고 질병보험이 1.5% 증가하는 데 그침.
 - 또한 유배당보험은 22.3% 감소한 반면 무배당보험이 13.9% 증가하여 보험상품의 무배당화가 심화되고 금리연동형 보험이 21.1% 증가하고 도입 초기인 변액보험이 285.7%나 증가하여 금리위험의 완화와 자기 책임의 투자형 상품의 성장가능

성을 보여줌.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24,311	91,424	23,901	26,555	37,028	28,192	115,676
	성장률	19.0	22.0	11.8	20.0	56.8	16.0	26.5
	구성비	21.0	18.6	21.0	23.1	23.9	23.4	23.0
사망	보험료	54,756	211,701	55,609	55,989	57,714	60,047	229,359
	성장률	15.1	21.4	10.5	6.3	7.0	9.7	8.3
	구성비	47.3	43.1	48.8	48.8	37.3	49.9	45.5
생사 혼합	보험료	26,959	110,392	23,465	22,985	26,139	21,916	94,505
	성장률	-10.7	-14.1	-15.2	-14.5	-9.5	-18.7	-14.4
	구성비	23.3	22.5	20.6	20.0	16.9	18.2	18.8
변액 보험	보험료	1,059	1,976	920	1,136	3,210	2,356	7,621
	성장률	-	-	887	682.7	372.6	122.5	285.7
	구성비	0.9	0.4	0.8	1.0	2.1	2.0	1.5
개인 계	보험료	107,084	415,493	103,895	106,665	124,091	112,510	447,161
	성장률	9.0	10.0	4.4	4.8	15.8	5.1	7.6
	구성비	92.6	84.7	91.1	92.9	80.1	93.6	88.7
단체	보험료	8,613	75,175	10,108	8,094	30,836	7,726	56,764
	성장률	-35.9	-21.6	-37.3	-33.1	-19.6	-10.3	-24.5
	구성비	7.5	15.3	8.9	7.1	19.9	6.4	11.3
합계	보험료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성장률	3.6	3.6	-1.4	0.7	6.5	3.9	2.7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3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사의 비중이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경우 손익위주의 경영으로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2보다 3.8%p 감소한 7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후 초회보험료의 급증과 TM·CM·홈쇼핑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한 적극적 판매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이 FY2002보다 각각 0.7%p, 3.1%p 상승한 14.4%, 13.6%로 나타남.
 - 특히 외국사의 경우 알리안츠생명의 시장점유율 하락의 영향으로 3/4분기중 시장점유율은 1%p 감소하였으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영향과 6개 외국사의 방카슈랑스채널(외국사 초회보험료 비중 33.3%) 판매증대에 따라 비중이 증가함.
 -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4개사가 방카슈랑스의 27.8%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반면 신계약건수 기준으로는 42.2%를 차지하여 건수기준 13.1%를 차지한 외국사에 비해서 건당 보험료가 크게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74.5	75.8	74.2	71.7	71.5	71.0	72.0
상위 9개사	91.8	92.3	91.4	89.9	87.7	89.0	89.4
외 국 사	12.0	10.5	12.5	14.0	13.0	14.9	13.6
국내중소형사	13.6	13.7	13.3	14.3	15.5	14.2	14.4
허핀달지수	0.2201	0.2271	0.2157	0.2015	0.1969	0.1993	0.2024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4년 3월말 알리안츠 등 11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3 당기손익은 보험영업이익 감소로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폭(43.9%)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조 2,446억원 감소한 1조 5,874억원을 실현하였음.
- 보험영업이익은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와 종신보험의 판매에 따른 신계약비상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손익규모가 큰 폭(18.4%)으로 축소됨.
 - 투자영업이익은 회계기간중 증권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투자영업수익이 개선되고 영업비용의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9% 증가한 9조 4,5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 또한, 일부 대형사들의 상장지연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납부 등으로 기타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총손익을 악화시킴.

<표 7>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341,200	457,713	111,565	225,632	356,191	477,213
	투자영업	79,625	105,707	28,480	57,164	84,098	118,707
	기타	8,053	8,951	3,572	8,323	5,638	4,487
	계	428,878	572,371	143,617	291,119	445,928	600,407
총 비 용	보험영업	237,824	337,132	93,112	185,220	281,384	378,857
	투자영업	13,604	23,368	5,001	10,121	18,513	24,140
	기타	13,094	15,951	9,188	15,850	15,437	26,332
	계	264,522	376,451	107,301	211,191	315,334	429,329
수 지 차	보험영업	103,376	120,581	18,453	40,412	74,807	98,356
	투자영업	66,021	82,339	23,479	47,043	65,585	94,567
	기타	-5,041	-7,000	-5,616	-7,528	-9,798	-21,845
	계	164,356	195,920	36,316	79,928	130,593	171,078
준비금전입		126,316	160,325	28,134	61,671	109,932	149,949
법인세		-	7,275	96	187	187	5,255
당기순이익		38,039	28,320	8,086	18,069	20,474	15,874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지급보험금 등의 증가로 상승하고 사업비율은 사업비가 소폭 증가에 그침에 따라 감소함.
- 지급보험금은 종신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93.3%)를 위시한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45.7%) 및 슈퍼재테크 보험의 만기도래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여 전체 보험금지급률을 상승시킴.
 - 보험종목별로는 FY2002 22.5%를 차지하던 생사혼합보험이 14%나 감소하면서 약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보험을 포함한 단체보험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 가계신용 불안의 확대 및 노동시장 불안 등으로 개인 금융자산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실효·해약이 증가하면서 해약률이 16.1%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종신보험의 신계약률이 감소하는 등 신계약률이 27.5%로 감소함.

<표 8>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지급률	73.5	60.0	69.4	65.8	51.7	68.7	63.0
생 존	67.6	57.6	55.9	50.7	39.4	60.5	50.4
사 망	28.5	25.9	30.0	31.6	32.8	34.3	32.2
생사혼합	131.1	94.3	142.1	136.1	108.9	121.1	126.6
개 인 계	63.2	51.1	61.4	59.0	51.0	58.2	57.2
사 업 비 율	18.5	17.4	17.5	17.8	14.8	19.0	17.1
신 계 약 률	32.1	32.1	6.8	12.4	19.3	27.5	27.5
해 약 률	14.8	14.8	4.9	9.2	12.9	16.1	16.1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3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증시 활황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등 경기회복지연의 영향으로 저금리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0.8%p 감소한 7.6%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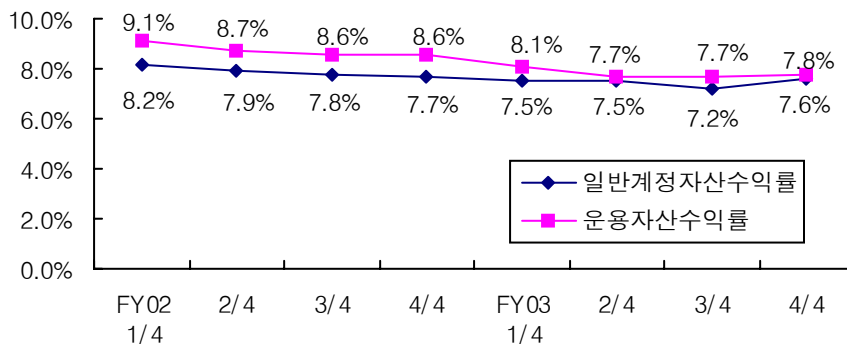
○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p 감소한 9.4%를 기록함.

- 상품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소폭 감소한 반면, 투자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저금리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한 6.8%를 기록함.

○ 채권의 운용수익률은 저금리 장기화로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임.

○ 반면, 상품유가증권의 주식 수익률은 증시 활황에 힘입어 60.1%p 상승한 79.5%를 기록함.

<그림 2>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자산의 투자수익률은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수익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이자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의 보유규모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51.6%를 기록함.
- 특히 투자유가증권의 채권 비중은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43.8%를 기록함.
 - 주식의 보유 비중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의 보유 비중은 신용리스크 증대 등의 영향으로 2.7% 감소한 26.1%를 기록함.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예금 및 예치금	2.1	5.3	2.1	4.1	1.9	3.4	2.1	2.9	1.8	3.1
유 가 증 권	50.8	10.8	51.2	7.7	52.3	7.0	53.7	6.9	54.8	9.4
○ 상품유가증권	4.0	11.3	3.6	20.1	3.7	10.3	3.2	11.3	3.3	11.0
- 주 식	0.1	19.4	0.1	115.0	0.2	66.5	0.2	82.5	0.2	79.5
- 채권 등	2.2	25.9	2.4	24.6	1.9	10.7	1.9	9.6	1.8	13.9
- 수익증권	1.7	4.7	1.3	6.7	1.6	5.8	1.2	8.2	1.3	6.6
○ 투자유가증권	46.8	7.8	47.6	6.7	48.6	6.8	50.5	6.6	51.6	6.8
- 주 식	3.5	5.2	4.1	2.7	4.2	3.7	4.6	2.9	5.0	5.5
- 채권 등	40.5	11.0	40.7	7.5	41.6	7.4	43.3	7.1	43.8	9.4
- 수익증권	2.8	6.5	2.9	2.1	2.9	2.6	2.6	4.5	2.7	4.2
대 출 채 권	28.8	10.8	28.6	10.1	27.9	10.3	27.0	10.3	26.1	10.6
부 동 산	6.0	3.6	5.7	3.2	5.5	3.2	5.3	3.3	5.2	4.1
운 용 자 산 계	87.8	8.6	87.6	8.1	87.6	7.7	88.1	7.7	88.1	7.8
비 운 용 자 산	12.2	-	12.4	-	12.4	-	11.9	-	11.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7.7	100.0	7.5	100.0	7.5	100.0	7.2	100.0	7.6
	92.0		92.2		92.4		91.7		92.1	
특 별 계 정 자 산	8.0	-	7.8	-	7.6	-	8.3	-	7.9	-
총 자 산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총 자 산 규 모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의 총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순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3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은 일시납 보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판매 공세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기존채널을 크게 앞섬.
- 이는 일시납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납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월납 중심의 다른 채널과의 수평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음.
- 반면,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적극적 판매전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8.6% 감소한 37.2%를 기록함.
- 또한 설계사들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신계약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표 10>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회사직급	22.9	46.0	24.2	14.6	18.1	10.6	16.7
보험설계사	63.4	45.8	61.1	42.2	25.7	42.5	37.2
대 리 점	11.8	7.0	11.6	7.3	6.1	7.9	7.5
중개인	-	-	-	-	-	-	-
T/M	-	-	2.5	2.9	1.7	3.1	2.3
C/M	-	-	0.2	0.1	0.05	0.1	0.1
방카슈랑스	-	-	-	32.7	48.2	30.0	34.8
기 타	1.9	1.3	0.5	0.2	0.2	0.3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844	54,668	8,824	11,984	29,943	13,632	64,38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0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3 경영효율성과 판매채널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수, 대리점의 수는 감소하였음.
- 대부분 국내사들이 영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6,561	26,726	26,356	26,231	25,616	26,172
보험설계사	155,393	151,064	145,613	144,457	144,666	143,498
생산성	-	19,933	-	21,247	-	-
대리점	7,056	7,267	7,416	7,604	7,406	7,219
생산성	-	46,723	-	60,337	-	-

주 : 1) 각 상단 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 + \text{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2} \div \text{누적월수}$$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김진억 선임연구원, 신동현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전체>

□ FY20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1조 3,743억원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에서 저성장세를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은 하반기 다소 성장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FY2003 전체 성장률은 0.6%에 그쳤으며,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FY2003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8조 8,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여 전년도 총자산 증가율 8.1%보다 1.7%p 확대됨.

- 보험영업 부문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

<표 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7.4	10.2	3.4	2.6	3.6	5.6	3.8
총자산	353,683	353,683	361,677	370,015	378,918	388,229	388,229
	0.4	8.1	2.2	2.3	2.4	9.8	9.8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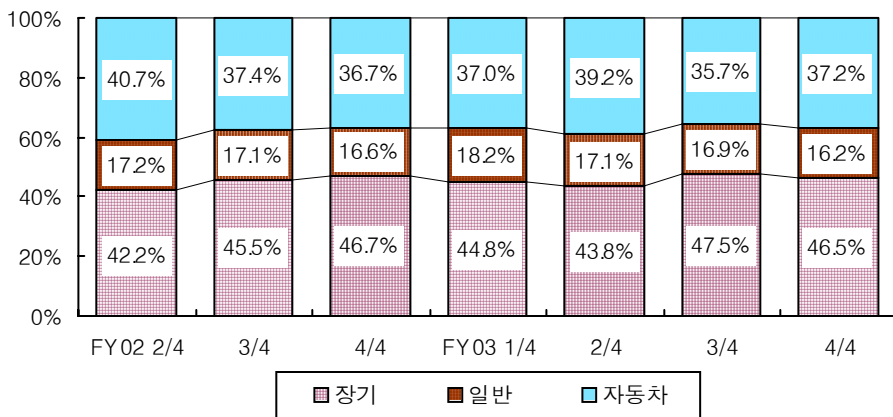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37.2%, 장기 손해보험 45.6%, 일반손해보험 17.2%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1.2%p 감소하였으며, 화재보험(1.5%), 해상보험(2.5%) 등도 다소 감소하였고, 특종보험(8.5%)은 점유율이 증가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3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조 9,606억원을 나타내었으며,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4/4분기 실적이 다소 회복되어 전년 대비 0.6%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 시장내 가격경쟁 격화,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감소에 기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즉, 2003년 11월 기본보험료 평균 3.5% 인상 이후 2004년 초부터 회사별 범위요율 조정을 통한 인상조치로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최근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관리 등은 영업 실적 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FY2003 원수보험료 8조 5,794억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7.1%의 성장률을 나타냄.
 -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28.8%) 및 상해보험(7.0%)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FY2002 7.8% 감소하였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FY2003에는 5.7%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해 장기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19.2% 급증하였음.
- 보증보험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9,419억원을 나타내었으며, FY2003 2/4분기 이후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FY2002 급성장하였던 상업신용, 할부신용, 신용카드신용 등 신용보험 시장 성장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대출용 보증보험 판매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항공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음.
 - 9.11 테러사태로 급상승하였던 요율이 안정화되면서 항공보험은 전년 대비 -30.7%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선박보험 11.3%, 적하보험 6.8%, 운송보험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화재보험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3,160억원을 나타내었는데, 요율인하 조정과 더불어 종합보험 등으로 계약이 이전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FY2003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 8,073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전년 대비 8.0% 증가에 그침.
 - FY2003부터 적용된 요율인하 조정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및 투자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 7.7%, 책임보험 8.2%, 상해보험 11.3%, 기술보험 4.8% 등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1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50	3,219	825	761	881	692	3,160
	성장률	7.4	6.1	2.5	0.9	-3.1	-7.7	-1.8
	구성비	1.5	1.6	1.6	1.4	1.5	1.3	1.5
해 상	보험료	1,418	5,605	1,396	1,385	1,151	1,310	5,242
	성장률	1.1	5.9	-7.3	-0.2	-11.0	-7.6	-6.5
	구성비	2.8	2.7	2.7	2.6	2.0	2.5	2.5
자동차	보험료	18,358	79,138	18,939	20,662	20,311	19,693	79,606
	성장률	1.9	6.1	-2.0	-1.2	-1.1	7.3	0.6
	구성비	36.7	38.4	37.0	39.2	35.7	37.2	37.2
보 증	보험료	2,530	9,362	2,423	2,261	2,259	2,475	9,419
	성장률	29.5	30.8	11.0	1.2	-6.4	-2.2	0.6
	구성비	5.1	4.5	4.7	4.3	4.0	4.7	4.4
특 종	보험료	3,472	16,734	4,546	4,454	5,140	3,933	18,073
	성장률	11.6	20.6	5.7	3.1	10.7	13.3	8.0
	구성비	6.9	8.1	8.9	8.4	9.0	7.4	8.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3	564	137	155	163	173	628
	성장률	-1.8	12.3	-4.6	27.3	11.9	13.3	11.4
	구성비	0.3	0.3	0.3	0.3	0.3	0.3	0.3
장 기	보험료	20,783	80,134	20,871	20,996	21,801	22,126	85,794
	성장률	7.8	10.0	8.1	6.5	7.2	6.5	7.1
	구성비	41.5	38.9	40.8	39.8	38.3	41.8	40.1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0	6,786	1,704	1,705	1,716	1,748	6,873
	성장률	4.8	1.6	2.6	1.3	0.9	0.4	1.3
	구성비	3.5	3.3	3.3	3.2	3.0	3.3	3.2
퇴 직 보 험	보험료	879	4,401	322	388	3,488	751	4,949
	성장률	127.3	53.6	24.7	37.6	17.0	-14.6	12.4
	구성비	1.8	2.1	0.6	0.7	6.1	1.4	2.3
계	보험료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성장률	7.4	10.2	3.4	2.6	3.6	5.6	3.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3 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
- 상위 4개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0.6%p 증가한 70.6%를 나타내었고,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였음.
 - 한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0.2%p 감소함.
 - 외국사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준인 0.1576을 나타내어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표 14>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비	상위4개사	70.0	70.0	69.8	70.1	70.3	70.6	70.6
	일반사 계	94.6	94.6	94.4	94.6	94.7	94.6	94.6
	전 업 사	4.7	4.7	4.8	4.5	4.4	4.5	4.5
	외 국 사	0.7	0.7	0.8	0.8	0.9	0.9	0.9
허 핀 달 지 수		0.1571	0.1571	0.1555	0.1578	0.1579	0.1576	0.1576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3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4% 증가한 5,635억원을 나타냄.
- 그러나,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영업적자가 8,564억원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이 3,2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성장 둔화로 인 해 전년도 210억 흑자에서 대폭 감소하여 6,081억원 적자를 시현함.
-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투자환경 개선으로 전년 대비 68.8% 증가한 1조 4,954억 원을 기록함.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135,707	185,350	47,545	95,760	145,055	195,477
	투자영업	15,972	21,000	5,896	11,631	16,571	23,056
	기 타	4,912	6,516	830	1,584	5,384	6,713
	계	156,591	212,875	54,271	108,975	167,009	225,245
총 비 용	보험영업	135,555	185,148	47,263	96,480	147,472	201,558
	투자영업	7,284	12,141	1,503	3,052	5,452	8,102
	기 타	7,154	9,648	1,439	2,780	6,182	8,199
	계	149,993	206,937	50,205	102,313	159,106	217,859
수 지 차	보험영업	151	210	283	-720	-2,418	-6,081
	투자영업	8,688	8,860	4,393	8,579	11,120	14,954
	기 타	-2,242	-3,132	-609	-1,196	-798	-1,487
	계	6,598	5,937	4,067	6,662	7,904	7,387
법 인 세		2,101	2,689	769	1,244	1,453	1,751
당기순이익		4,497	3,249	3,298	5,418	6,451	5,635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3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 대비 3.5%p 증가한 101.9%를 기록함.
 - 합산비율의 상승은 사업비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 등 모든 보험종목의 손해율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율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한 24.3%를 기록함.
- FY2003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75.2%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의 증가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수입 감소와 교통사고 증가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에 기인한 것임.
 - 특종보험은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기타특종과 재산종합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전년 대비 10.3%p 증가한 57.8%를 기록함.
 - 보증보험은 보험금 환입에 대한 효과가 소멸되면서 손해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4.1%를 기록함.

<표 1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4/4
손해율	화재보험	57.0	54.3	62.7	63.9	61.6	61.7
	해상보험	53.4	51.6	45.7	53.6	57.4	57.7
	자동차보험	66.9	68.4	72.9	74.8	75.8	76.7
	보증보험	77.7	42.0	33.8	10.1	23.8	44.1
	특종보험	41.4	47.5	43.1	50.9	51.0	57.8
	해외원보험	54.5	50.4	46.5	47.7	48.5	47.5
	장기보험	81.4	81.5	80.9	80.5	81.3	82.4
	개인연금	114.4	118.7	114.6	115.6	116.1	121.8
	전 체	73.5	72.9	73.7	73.8	75.2	75.2
사업비율		24.4	25.5	24.7	25.2	24.8	24.3
합산비율		97.9	98.4	98.4	99.0	100.1	101.9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3 손해보험 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신용부문 등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증시 활황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6.4%를 기록함.

○ 이는 1~3월 중 외국인 순매수 지속과 기업실적 호전 등의 영향으로 인한 증시 활황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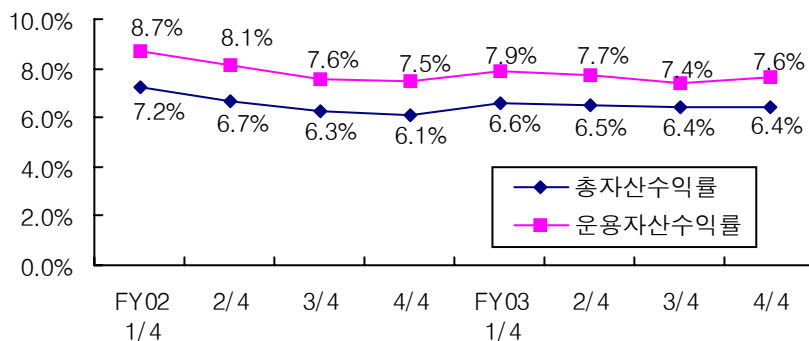
- 상품유가증권의 주식수익률은 증시 활황에 따라 전년 대비 90.5%p 증가한 103.3%를 기록함.

○ 그러나,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의 지속에 따른 투자여건의 악화로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품유가증권의 채권수익률은 저금리의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한 8.8%를 기록함.

- 투자유가증권의 채권수익률도 전년 대비 0.7%p 감소한 7.6%를 기록함.

<그림 4>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3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의 보유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나타냈음.

○ 반면,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보유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손보사들의 자산운용전략이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4/4	1/4		2/4		3/4		4/4	
	구성비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5.9	5.2	4.5	5.1	4.2	5.7	3.8	4.9	4.1
유 가 증 권	53.2	54.6	8.8	54.7	8.6	54.3	8.1	54.7	8.5
○ 상품유가증권	17.5	17.7	11.4	16.9	10.9	14.3	11.0	15.1	10.5
- 주 식	0.5	0.7	107.7	0.9	71.6	1.1	85.8	0.9	103.3
- 채 권 등	12.2	12.0	9.6	10.5	10.0	8.7	9.0	8.8	8.8
- 수익증권	4.8	4.9	5.3	5.5	5.6	4.5	5.3	5.4	5.1
○ 투자유가증권	35.7	36.9	7.5	37.8	7.5	39.9	6.9	39.7	7.6
- 주 식	4.7	5.5	3.9	5.7	5.8	6.5	5.0	6.7	6.2
- 채 권 등	30.8	31.1	8.1	31.9	7.5	33.1	7.2	32.7	7.6
- 수익증권	0.2	0.3	0	0.2	5.0	0.3	2.8	0.3	15.2
대 출 채 권	17.1	16.8	8.4	17.1	8.6	17.3	8.7	18.1	8.6
부 동 산	9.1	9.0	3.3	8.9	3.1	8.9	3.0	8.7	3.0
운 용 자 산 계	85.3	85.7	7.9	85.9	7.7	86.2	7.4	86.4	7.6
비 운 용 자 산	14.7	14.3	-	14.1	-	13.8	-	13.6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7.1)	100.0 (97.2)	6.8 -	100 (97.2)	6.7 -	100 (96.6)	6.4 -	100.0 (96.7)	6.6 -
특 별 계 정 자 산	2.9	2.8	-	2.8	-	3.4	-	3.3	
총 자 산	100.0	100.0	6.6	100.0	6.5	100.0	6.2	100.0	6.4

주 :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3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전통채널의 시장점유율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가형 상품 공급전략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신채널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보험시장은 손해보험회사간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저가형 상품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회계연도 초에 비해 0.5%p 상승한 2.5%를 기록함.
-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시장 점유율은 내수부진에 따른 자동차시장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초에 비해 0.7%p 증가한 5.5%를 나타냄.

<표 1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4/4
회사직급	16,962	22,179	5,019	10,190	14,833	19,323
	11.1	11.0	9.9	9.9	9.5	9.3
보험설계사	56,111	74,411	18,021	36,877	55,697	74,465
	36.8	36.9	35.3	35.7	35.6	35.7
대 리 점	77,726	102,932	26,130	52,676	78,901	105,607
	51.0	51.1	51.4	51.0	50.4	50.6
중개인	-	-	248	577	1,378	1,791
	-	-	0.5	0.6	0.9	0.9
TM	-	-	755	1515	3,153	3,901
	-	-	1.5	1.5	2.0	1.9
CM	-	-	231	460	974	1,168
	-	-	0.5	0.4	0.6	0.6
방카슈랑스	-	-	-	62	401	813
	-	-	-	0.1	0.3	0.4
공동인수	1,540	2,019	436	863	1,307	1,727
	1.0	1.0	0.9	0.8	0.8	0.8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경기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채널 상품 선호 현상과 장기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사조직 확대로 보험설계사 생산성(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함.

○ 반면, 대리점 생산성은 모집조직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 모집조직의 정비 강화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8.3% 증가함.

<표 1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0,736	20,886	20,569	20,768	20,800	21,207
	81,799.0	106,191.8	24,402.6	49,107.0	71,314.6	91,115.4
보험설계사	55,258	54,291	56,762	57,063	59,286	60,178
	101,543.4	137,060.2	31,748.7	64,625.6	93,945.9	123,741.4
대 리 점	52,066	50,877	50,828	51,068	50,021	48,217
	149,283.8	202,316.3	51,409.6	103,148.6	157,735.0	219,024.1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신동현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금융통합법 : 법제화 방안의 현황

금융통합법,
2004년 12월
내부법률안
작성,
2005년 12월
시행령조문안
작성예정

- 정부는 2003년 3월 금융겸업화시대에 적합한 법적 환경 조성
과 개입주의 규제체계를 시장친화적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금융관련 법률을 통합하기로 결정함.
- 통합금융법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2년 12월 서울대 금융법
센터 보고서 발표, 2003년 3월 재경부와 금발심의 주도로 작업
개시(서울대 금융법센터 법안작성,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한
국개발연구원이 정책 및 통합방향 담당), 2003년 12월 통합금
융법 요강을 작성함.
- 2004년 12월 내부법률안 작성 및 2005년 12월 시행령조문안을
작성할 계획임.

<기본원칙>

기본원칙은
원칙적
현상유지,
예외적 수정

- 금융통합작업은 기존의 금융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고(원칙적 현상유지), 시급한 개정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정(예외적 수정)
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현상유지원칙의 취지는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기본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금융시장참여자들이 익숙한 규제환경을 가급적 유지함으로써 규
제비용의 절감과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규제의 변동 폭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법 작업의 규모를
적절한 범위 내로 유지하고자 함.

- 반면, 예외적 수정원칙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포괄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종전의 상품별,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규제를 가할 수 있어 업무영역 간 규제의 불균등이나 규제의 공백, 업무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적용대상기능과
적용대상업무로
구분**

- 통합금융법의 적용범위는 적용대상기능과 적용대상업무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적용대상기능 측면에서는 규제의 기능을 진입 및 업무영역규제, 건전성 및 자산운용규제, 영업행위 규제, 퇴출 및 조직변경규제로 구분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통합의 대상으로 할 것 인지가 중요함.
- 적용대상업무에서는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금융활동의 범위가 논의의 대상임.

**적용대상기능은
진입, 건전성,
거래, 퇴출**

- 적용대상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음.
- 통합대상법률은 진입, 건전성, 거래, 퇴출 등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로 한정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국의 금융서비스및시장법은 진입 및 업무영역 규제, 건전성 규제, 업무행위 규제, 퇴출 및 조직변경규제의 네 가지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은 영업행위 규제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진입 및 업무영역 규제, 건전성 규제, 퇴출 및 조직변경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업법이 그대로 적용 되고 있음.

적용대상업무
는 '금융상품,
금융업무,
고객구분'
기준으로 확정

- 적용대상업무는 '금융상품'과 '금융업무' 그리고 '고객구분'의 세 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있음.
 - 이는 일정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금융상품)에 관한 매매나 중개 기타 일정한 행위(금융업무), 거래상대방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여 후자와의 거래에 규제조치를 집중함으로써 한정적인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금융시장 전체의 규제완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그 밖에 외국환 거래, 재경부 소관 이외의 금융관계법률, 통합대상법률 중 잔여사항, 금융감독기구의 통합법상 책임근거와 규제권 행사의 목적과 원칙 등, 금융유관기관과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입법형식>

입법형식은
복수개별법을
원칙

- 통합금융법의 형식에는 복수개별법에 의한 통합과 단일통합법에 의한 통합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복수개별법에 의한 통합은 현행 금융관계법을 기능별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복수의 개별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말함.
 - 금융법센터의 조문화 작업은 네 가지의 법률제정을 통한 복수개별법에 의한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등의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4 가지 개별통합법을 제정함.
- 호주는 진입 및 건전성규제와 업무행위규제를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입법체계를 유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단일통합법체제를 구축하였음.

- 반면, 영국은 진입 및 건전성 규제와 업무행위 규제, 그리고 퇴출과 발행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 관련 사항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였음.

<통합금융법의 지위>

- 위임입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상 법률사항과 시행령사항 기타 감독사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의 존재를 검토한 후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입법기술상 하부규정에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에는 기준과 원칙만을 정한 후 하부규정에 위임하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할 것으로 보임.
- 통합금융법은 그 내용의 일반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므로 감독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의 목적과 규제권 행사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독기관의 권한 행사와 책임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통합금융법의 기본구조>

**기본구조는
금융기관 등의
설립, 자산운용
및 감독,
금융거래,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구성**

- 통합금융법은 내용별로 4개의 개별통합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1편 총칙, 제3편 금융업자, 제4편 주요 금융업무 종사자, 제9편 금융시장, 제10편 청산결제기구는 “금융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구성함.
- 둘째, 제5편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을 구성함.

- 셋째, 제6편 금융거래의 기본원칙, 제7편 금융거래의 공정성 확보, 제8편 발행시장, 제12편 금융실명거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의 보호, 제15편 분쟁해결절차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을 구성함.
- 넷째, 제13편 금융업자의 퇴출은 “금융기관 등의 퇴출 및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구성함.
- 제14편 감독 및 제재는 각 법에 분산되어 규정될 것으로 보임.

<통합금융법 제정 과정상의 대응>

**보험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
필요**

- 통합금융법 제정이 기존의 법규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업무행위 규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를 새로 신설해야 하는 등의 여지가 남아 있음.
- 이와 아울러 금융점업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2003년 보험업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향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험산업 규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권간
의견조율시
창구를
마련하여
단일한
의견제시 필요**

- 향후 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권간 의견조율시 창구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단일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함.
- 생손보 간에 의견이 나뉘고, 또한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연구기관과 협의를 할 경우 타금융권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

(신동현 연구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규 및 감독규정의 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정·시행

- ☐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중 투자자문업 관련 법규를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시행됨.
-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1.5), 시행령(3.22), 시행규칙(4.1), 감독규정이 공포 시행(4.20) 중이며,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표준신탁약관, 표준판매행위준칙 등은 작업진행 중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내용>

기능별 입법체제로 전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방식은 기관별 입법체계에서 기능별 입법체제로 전환됨.
- 법령에서 간접투자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기능과 속성을 가진 금융업에 대하여는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하는 기능별 입법체계 방식을 채택함.

투자대상 확대

- ☐ 자산운용 투자대상이 확대됨.
- 종전에는 간접투자의 투자대상을 '유가증권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종전의 유가증권 외에 장내·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까지로 확대하고 있음.

감독장치 마련

-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장치가 마련됨.
- 자산운용업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구조를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투자회사의 경우는 자산보관회사가 감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감시구조를 취함.

공시기능 강화

- ☐ 정보제공 확대로 공시기능이 강화됨.
- 각종 정보제공행위(투자설명서 제공, 광고, 각종 보고서 제공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들은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함.

□ 그 밖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
변액보험,
수탁기능 분리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회사 허가를 받아 투자신탁의 설정이 가능한 대상은 변액보험인 특별계정형태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수탁기능 분리로 자산운용과 관련된 감시기능이 강화됨.

<표 1> 금융회사별 업무영역

구분	운용업	판매업	수탁업	일반사무 관리업	투자자문업
자산운용 회사	○	○ (직판)		○	○ (점업)
증권회사		○		-	○ (일임형 랩)
은행	○	○	○	○	-
보험회사	○ (변액보험)	○	-	-	-
투자자문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자산운용업의
허가, 승인,
등록 요건 규정

- 자산운용업 등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 은행·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와 자산운용회사·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겸영등록 심사시 적용할 주요 출자자 요건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함.
 -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 적용할 재무건전성기준은 감자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으로 함.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현행 8%)이상으로 함.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판매회사로 하여금 간접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기명날인, 녹취 및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 받도록 함.
-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시 국내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함.
- 부실자산은 환매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선 환매에 응하는 부분환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해 부실자산 발생으로 인한 펀드 환매 급증 및 자금의 신규유입 차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제도의 도입 및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강화로 단독 간접투자기구와 공모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분리제도를 폐지함.
-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배분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함.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간접투자기구간 운용성과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비교기준을 표기하도록 하며, 평가결과 수정시 수정사실의 공시를 의무화함.

□ 역외투자자문에 관한 사항

- 역외투자자문업자(cross-border)의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시 등록요건중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등으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전문인력은 당해 국가 전문인력요건 등으로 같음.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 사모주식투자
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
마련**
- ☐ 재경부는 사모주식투자펀드의 활성을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함.
-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이 필요함.
- 합자회사형
사모투자
전문회사
설립근거 마련**
-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함.
-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 M&A펀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합자회사형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 투자자간 동등한 손익분배 원칙을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 및 위험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자간 손익분배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하고자 함.
- 업무범위 확대**
-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업무범위를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M&A, 경영권 참여, SOC 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으로 확대하고자 함.
- 운용규제 완화**
- ☐ 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하여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은행지분소유
관련 규제완화**
- ☐ 지주회사 적용배제, 대기업집단관련, 은행지분소유 제한 완화
- 사모투자펀드가 특정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한 뒤 10년이 넘도록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함.

(신동현 연구원)

보험동향 2004년 여름호

3. 예금보험요율제도의 현황과 주요국 비교

<현황>

-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1998년 4월 1일부터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어 6개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탁)의 모든 예금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기금 통합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른 물리적 통합으로서 업종별 특성이나 기능상의 효율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 1998년 4월 보호기금의 통합 이후 6개 금융업종의 보험료율은 은행이 가장 낮은 0.1%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증권회사는 0.2%, 보험회사와 종금사 등은 0.3%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은행의
예금보험요율
은 0.1%,
보험은 0.3%

<표 1> 금융권별 예금보험요율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0.001	0.002	0.003	0.003	0.003
법정 한도	0.005	0.005	0.005	0.005	0.005

예금보험요율
산정의 합리적
근거 미약

- 업종별 보험료산식에 대한 근거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요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거가 미약함.
- 예금보험공사(2003)에 따르면, 1998년 4월의 기금통합시 각 계정별 적립금액은 보험이 1,793억원(인보험 1,414억원, 손해보험 379억원), 종금 848억원, 저축은행 2,017억원, 신탁 402억원인 반면, 은행은 321억원이고 증권 계정에 적립된 금액은 없음.
- 금융기관별 경영 및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업종별 차등요율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공적자금투입 규모를 비교할 때 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다른 권역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정의 합리적 근거가 미약함.

<표 2> 금융권역별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투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출자	출연	부실자산매입	보험금지급	대출	합계
은행	222,083	137,758	100,064	0	0	459,905
증권	70,604	1,000	2,966	144	0	74,714
보험	159,198	30,808	3,495	0	0	193,501
종금	27,052	1,820	0	171,950	12,917	213,739
저축은행	101	1,814	0	73,494	8,533	83,942
신탁	0	0	0	49,234	367	49,601

자료 : 이순재, 『예금자보호기금 통합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 한국보험학회 및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

<주요국 비교 : 은행과 보험>

주요국의 경우,
보험이
은행보다 높은
예금보험요율
적용

- 주요국에서는 금융권역간 예금보험요율의 비교에서 보험이 은행보다 크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은행은 부보예금의 0~0.27%,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수입보험료의 2%한도이며 뉴욕주를 제외하고 사후각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은행은 부보예금의 0.084%, 생명보험은 연간 분담액이 600억엔(회사별 부담능력 기준), 사전적립한도액 4천억엔, 손해보험은 연간분담액이 50억엔(회사별 부담능력 기준), 사전적립한도액 500억엔으로 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은행은 부보예금의 0.0417~0.3333%, 생명보험은 요구자본금의 1.33%(사후각출제), 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의 0.75%(1%한도)를 예금보험요율로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은행은 부보예금의 0.1%(연간한도 0.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수입보험료의 0.8% 한도로 사전적립제를 실시하며 부족시 추가로 부담함.

- 한국의 경우, 은행은 부보예금의 0.1%,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평균액의 0.3%를 매년 납부하되 연납부액이 0.5%를 초과하지 못함.

<표 3> 주요국의 은행과 보험의 보험요율 비교

구분	은행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본	부보예금의 0.084%	연간분담액 600억엔	연간분담액 50억엔
미국	부보예금의 0.27%이내	수입보험료의 2% 한도	수입보험료의 2% 한도
캐나다	부보예금의 0.3333% 이내	요구자본금의 1.33%	수입보험료의 0.75%
영국	0.3% 한도 (사전적립제)	수입보험료의 0.8%	수입보험료의 0.8% 한도
한국	부보예금의 0.1%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2 의 0.3%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2 의 0.3%

자료 : 상동

**보상한도는
주요국의 경우
보험이
은행보다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동일 적용**

- 금융권역별 보상한도의 비교에서도 보험의 보장한도가 은행보다 크게 나타남.
- 영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은행파산의 경우 정액보상을 한도로 정하고 있음.
- 반면에, 보험회사 파산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이 비율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보험회사 파산시 30만 달러를 한도로 하고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보상제도를 갖고 있으며, 보상한도의 차이가 있고, 차등적 보상한도는 권역별로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만 은행파산과 보험회사 파산의 보상한도가 5천만원으로 균등하게 적용됨.

<표 4> 주요국의 은행과 보험의 보상한도 비교

구분	은행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본	정액보상한도 1천만엔	비율보상 90%	비율보상 90%
미국	정액보상한도 10만달러	정액보상한도 30만달러(사망) 10만달러(해약)	정액보상한도 30만달러
캐나다	정액보상한도 6만달러	정액보상한도 20만달러(사망) 6만달러(해약)	정액보상한도 25만달러
영국	2천 파운드까지 100%, 초과분은 3만3천 파운드까지 90%(한도: 3만 5천 파운드)	생명, 연금은 2 천 파운드까지 100%, 초과분은 90%	의무보험 : 100%, 일반보 험: 2천파운드 까지는 100%, 초과분은 90%
한국	정액보상한도 5천만원	정액보상한도 5천만원	

자료 : 상동

* 자료 : 이순재, 『예금자보호기금 통합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 한국보험학회 및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2004) 발표자료

(신동현 연구원)

4. FY200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 동향

가. 생명보험

<상품개발현황>

FY2003 생보사,
CI보험·LTC보험·
변액유니버설보
험 등 총
1,239종 상품
개발

- ☐ FY2003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은 1,239종으로 FY2002 (1,352종)에 비해 약 8.4% 감소함.
- o 개발·판매된 신상품의 주요 특징은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의 활성화 및 장기간병보험(LTC보험)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도입임.

<표 1> 최근 5개년도 상품개발건수

(단위 : 종)

구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상품개발건수	614	1,122	1,693	1,352	1,239
증감비율	-	82.7%	50.9%	-20.1%	-8.4%

주 : 증감비율은 직적년도 기준 대비 당해연도의 증감 비율임.

- ☐ 보험종류별 상품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주보험이 568종으로 45.8%, 독립특약이 671종으로 54.2%를 차지함.
- o 주보험을 '개인·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보험이 490종 (86.3%), 단체보험이 78종(13.7%)을 차지하였으며, '보장성·저축성'으로 구분시 보장성보험이 394종(69.4%), 저축성보험이 174종(30.6%)을 차지함.
- o 독립특약은 전체 671종 중 개인보험이 573종(85.4%), 단체보험이 98종(14.6%)을 차지함.

주보험내 저축성

30.6%, 보장성

69.4% 차지

<표 2> FY2003 생명보험 종류별 상품개발 구성 추이

(단위 : 종, %)

구분	저축성				보장성				주보험	독립 특약	합계
	교육	생사 혼합	연금	소계	사망	상해	질병	소계			
개인	1	94	72	167	188	57	78	323	490	573	1,063
	0.1	7.6	5.8	13.5	15.2	4.6	6.3	26.1	39.5	46.2	85.8
단체	0	7	0	7	30	30	11	71	78	98	176
	0.0	0.6	0.0	0.6	2.4	2.4	0.9	5.7	6.3	7.9	14.2
합계	1	101	72	174	218	87	89	394	568	671	1,239
	0.1	8.2	5.8	14.0	17.6	7.0	7.2	31.8	45.8	54.2	100.0

무배당보험이

97.5%로 대부분

□ 배당유무별 상품개발 현황을 보면, 무배당보험이 1,208종 (97.5%)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당보험의 경우 31종 중 개인보험 특약이 24종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연금저축 등에 부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

<표 3> 배당유무별 상품개발 현황

(단위 : 종)

구분	개인					단체					합계
	주보험			특약	소계	주보험			특약	소계	
	보장성	저축성	소계			보장성	저축성	소계			
무배당	323	162	485	549	1,034	70	7	77	97	174	1,208
	26.1	13.1	39.1	44.3	83.5	5.6	0.6	6.2	7.8	14.0	97.5
배당	0	5	5	24	29	1	0	1	1	2	31
	0.0	0.4	0.4	1.9	2.3	0.1	0.0	0.1	0.1	0.2	2.5
전체	323	167	490	573	1,063	71	7	78	98	176	1,239
	26.1	13.5	39.5	46.2	85.8	5.7	0.6	6.3	7.9	14.2	100.0

대형사 23.7%,

국내사 58.3%,

외국사 18.0%

□ 회사그룹별 상품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개발건수 1,239종 중 대형사가 294(23.7%), 국내사가 722종(58.3%), 외국사가 223종(18.0%)을 개발함.

<신규 개발상품의 특징>

**새로운 보험
개발,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개발,
방카슈랑스용
상품개발 활성화**

- ☐ 새로운 형태의 보험 개발 활성화
 - o CI보험의 활성화 :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인 CI보험의 개발이 활성화됨.
 - o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도입 : 중도 인출 및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하는 형태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외국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음.
 - o 장기간병보험의 도입 : 기존의 장기간병보험과 비교하여 장기간병상태(활동불능 및 치매)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선진국 형태의 종신행 장기간병보험으로 개발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응함.
 - o 달러표시형보험 도입 : 달러표시형보험은 원화표시로만 이루어졌던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US\$로 이루어지는 보험으로서 저축형보험을 중심으로 개발됨.
 - o 실손보상형 보험 활성화 :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생보사도 실손보상형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음.
- ☐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개발의 활성화
 - o CY2002부터 시행된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 부여는 CY2003에 본격적으로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져 동 기간에 총 8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음.
- ☐ 방카슈랑스용 상품개발 활성화
 - o 2003년 9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로 인해 상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o 방카슈랑스용 상품의 경우 기존 채널 상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개발되었음.

- 1단계 판매허용상품이 저축성보험에 국한되어 급부의 참신성 보다는 수익률이 소비자에게 중요 지표로 인식되었으며,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채널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비까지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개발함.

<FY2004 상품개발전망>

FY2004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이익 획득을 위한 상품 개발 등 전망

☐ 신상품 개발의 지속

-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 및 소비자의 금융지식 증대에 따라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금리리스크를 헤지하고 실세금리에 연동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의 개발 증대가 예상됨.
- 기존의 금리확정형종신보험의 시장 포화에 따라, CI보험, LTC 보험 등 건강보험에 종신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종신보험과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등 변형된 종신보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영역인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의 개발이 예상되며, 다양한 형태의 DI보험의 개발이 예상됨.

☐ 개발이익 획득을 위한 신상품개발 가속화

- 배타적 사용권 부여 제도는 2004년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개발이익 획득 상품은 마케팅 및 홍보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누리게 됨.
- 그러나, CI보험 외에는 그다지 높은 판매실적을 나타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진정한 신상품 개발이 요구됨.

☐ 기타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2005년 4월)에 대비한 보장성 상품의 개발이 예상됨.

-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률의 제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한 상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

나. 장기손해보험

<신상품 개발 현황>

**FY2003
장기손보
통합형보험·CI보
험 등 총
141종의 신상품
개발**

- FY2003 신규 개발된 장기손해보험은 총 141종으로 규모면에서는 FY2002 151종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합형보험,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등 전통적인 장기손해보험의 개념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상품들이 최초로 개발되었음.
- 통합보험은 세대 전체의 자동차, 화재, 배상책임, 신체상해, 질병 및 각종 비용손해를 일평생 보장하는 상품임.
 - 일종의 저축계좌인 보험료충당제도를 두어 자동차보험료와 위험보장보험료 미납시 이를 대체 납입토록 함으로써 보험실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됨.
- 2003년 9월부터 장기저축성 상품이 방카슈랑스 제 1단계 상품으로 허용됨에 따라, 대형사를 중심으로 총 17종의 방카슈랑스 상품을 개발, 시중은행 또는 투신사와 제휴 판매중임.
- 한편, 건강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2000년 이후 상해보험과 더불어 장기손해보험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부분이 높은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상품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개발 등으로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보험의 사회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그 밖에도 여성전용보험, 주5일제 확산에 따른 레저성보험, 어린이 질병보험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화상품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짐.

<표 4> 연도별 장기손해보험 신상품 개발 현황

(단위 : 종, %)

구분	간병	건강	상해	어린이	운전자	재물	통합형	총계
FY2003	8 (5.7)	38 (27.0)	48 (34.0)	10 (7.0)	17 (12.1)	13 (9.2)	7 (5.0)	141 (100.0)
FY2002	13 (8.6)	38 (25.2)	47 (31.1)	14 (9.3)	23 (15.2)	16 (10.6)	-	151 (100.0)
FY2001	7 (6.0)	38 (32.8)	39 (33.6)	2 (1.7)	14 (12.1)	16 (13.8)	-	116 (100.0)
FY2000	-	32 (33.7)	35 (38.0)	0 (0.0)	7 (7.6)	18 (20.7)	-	92 (100.0)

주 : ()는 구성비임.

<FY2004 상품개발 전망>

**FY2004,
방카슈랑스 상품
다각화·세분화
예상**

- 현재 상해·건강위험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이 다각화·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방카슈랑스 상품 영역의 확대 및 판매의 활성화는 손해보험회사의 전통적인 판매채널을 재편시켜 기존 상품의 운영형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FY2003은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대거 출시된 한 해였다면, 2004년은 이러한 상품들이 업계 전체로 파급되어 국내 손보시장을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임.

(조혜원 선임연구원)

5. 은행계 보험회사 진출동향

KB생명출범에
따라 은행계
보험회사는
5개로 증가

- 국민은행, 방카슈랑스전문 KB생명 출범.
- 6월 2일 국민은행은 계약이전방식으로 한일생명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방카슈랑스전문 보험회사인 KB생명을 출범시켰음.
- 이로써 은행계 보험회사는 기존 은행계 보험회사로 신한생명, SH&C생명, ING생명, 하나생명과 함께 5개사로 늘어났음.

<표 1> 은행계 보험회사 진출상황

구분	설립 등	은행관계사항
신한생명	1990년 3월	신한은행 대주주
SH&C생명	2001년 12월	신한그룹과 BNP Paribas 합작
ING생명	1989년 2002년 전략적 제휴	국민은행과 전략적 제휴관계
하나생명	1991년 11월 2003년 2월 합작법인 전환	하나은행 특수관계사(알리안츠그룹과 전략적 제휴)
KB생명	1993년 2004년 4월 국민은행인수	국민은행, 한일생명 P&A인수

- 하나은행, 하반기 중 보험회사 인수추진
 - 하나은행이 내년중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목표로 올 하반기 보험·증권·카드 등 비은행부문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 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설립한 하나생명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반기중 다른 보험회사를 인수, 하나생명과 합병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 하나생명의 합작파트너인 알리안츠생명과의 합병도 고려하고 있으나 일단 제3의 보험회사인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한편, 우리은행은 신임행장 취임에 따라 삼성생명에 지분매각, 보험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직접 설립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음.

(김진억 선임연구원)

해외보험동향

1. 미국, 일본 변액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가. 머리말

변액보험은 보험 보장에 투자기능을 혼합한 상품으로서, 미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직 도입초기인 우리나라 변액보험 시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에 투자 기능을 혼합한 상품으로서 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판매되고 있음.
-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각종 보장 관련 보험료 부분을 제외한 저축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에 따라 만기, 해약시 환급금 및 사고발생시 지급보험금 규모가 다른 상품임.
- 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변액종신보험, 연금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3가지 종류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고령화의 진전과 노후소득 관리라는 소비자 측면의 요구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투자형 보험상품의 필요로 변액보험이 도입됨.
- 본 고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아직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 변액보험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미국의 사례

미국 변액보험 시장은 금리, 주식 등 금융환경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강력한 재무기반의 상위사 상품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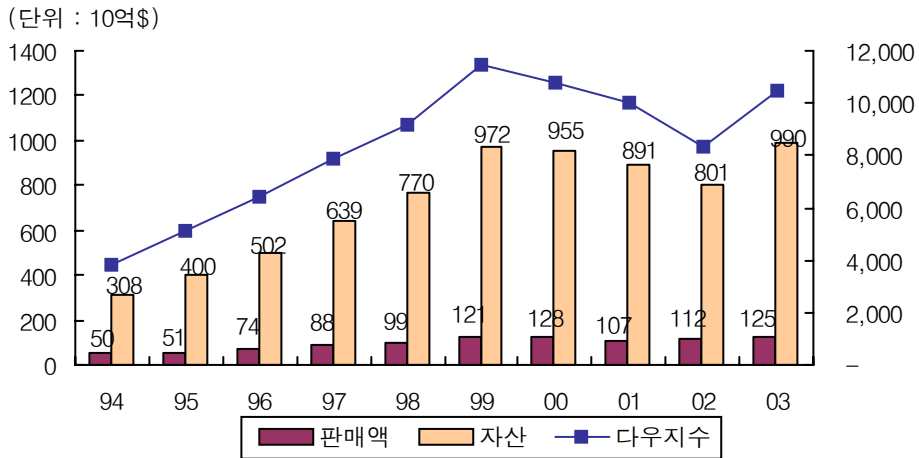
<변액연금 도입배경>

- 미국에서는 1980년대 고령화의 진전,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퇴직후 자산운용상품으로서 변액연금이 탄생하였음.
- 변액연금은 사망보험의 최저 보장, 생존보장, 종신연금 등의 특징을 고루 갖춘 획기적 상품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한층 합치되었음.
- 변액연금 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은행을 통한 변액연금 판매가 인가되면서 은행, 증권, 독립재무설계사(FP)에 의한 판매로 크게 확대되었음.

<변액연금 판매현황>

- 미국의 변액연금 시장은 과거 10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다가 2000년대 초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잠시 정체 현상을 보인 후,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임.
- 판매 규모는 1990년대 주식시장 호황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 판매액이 1999년에 1,210억 달러에 이르러 1994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였음.
 - 판매액 증가와 주가 상승으로 자산 규모도 크게 늘어 1999년에는 9,720억 달러에 이름.
- 2000년에 들어서는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변액연금 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판매액, 자산규모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2003년에는 다시 주식시장 호전으로 변액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산규모 및 판매액 규모가 모두 99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2003년 변액연금 신규판매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250억 달러로 2000년 1,28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신규판매액에서 해약액, 인출액, 연금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인 순현금흐름(netflow) 기준으로는 90% 가량 급신장하였음.

<그림 1> 미국 주식시장과 변액연금보험



- 판매채널에 있어서는 영업직원·전속대리점 또는 재무설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회사별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상위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 판매채널별 신규판매액을 살펴보면, 영업직원·전속대리점이 34%(02년 35%), 독립재무설계사 26%(02년 26%), 은행 14%(02년 11%), 전국증권회사 13%(02년 13%), 지방증권회사 12%(02년 13%), 다이렉트메일 1%(02년 2%) 등으로 은행이 3% 가량 증가한 것 외에는 전년도와 유사함.
- 회사그룹별 신규판매액은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002년 39%에서 2003년 4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변액연금시장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상이함에 따라 투자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연금자산이 강력한 재무기반을 지닌 선도 보험회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경쟁환경에서 규모 측면의 메리트가 중요시되고 있어 소비자 및 판매회사는 선도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음.
- 2003년 변액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일반계정으로 26%(02년 30%)을 점유하고 있으며, 투자부분의 자산은 주식 54%(02년 48%), 밸런스 펀드 8%(02년 9%), 공사채 9%(02년 9%),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3%(02년 5%)로 구성되어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변액보험은 주식, 금리 등 금융환경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과 변액연금의 보장기능(사망보장, 최저급부 보장, 최저인출액 보장 등)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소비자들은 건전한 재무능력을 갖춘 상위사들의 상품을 선호하며, 영업직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구매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변액보험 시장은 주식시장 변동 외에도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성, 재무 측면의 신뢰성 등에 의해 좌우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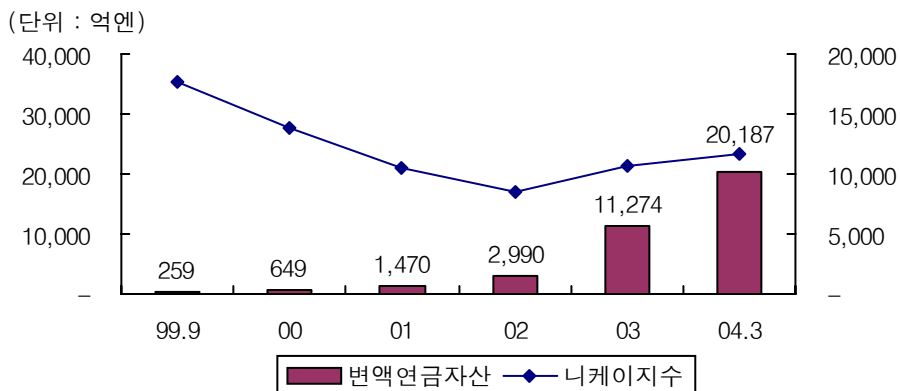
<변액연금 도입배경>

- 일본의 변액보험은 198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변액연금은 1999년부터 개발, 판매되고 있음.
- 변액보험은 도입 이후 3년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나, 1990년부터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됨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하고 부실판매에 대한 소송 제기 등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이 실추되어 외국계 보험회사를 비롯한 몇몇 중소형사만 명맥을 유지해 왔음.
- 이후 1994년 4월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 및 다양한 판매채널의 확대, 퇴직금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ING생명이 최초로 변액연금 판매를 시작하였음.

<변액연금 판매현황>

- 일본에서의 변액보험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인식 저하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반면, 외국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변액연금은 주가지수의 계속된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 호조를 나타내었음.
- 1999년 도입 이후 주식시장 불황에도 변액연금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2002년 연금자산은 2000년 대비 5배 증가한 2,990억엔에 이르고 있음.
 - 외국사를 중심으로 펀드의 수를 늘리고,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등 변화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상품을 개발,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주식시장 불황기에도 그 이미지가 개선되었음.
 - 특히, 2000년 12월에는 하트포트사가 증권채널을 통해 변액연금을 판매하면서 판매액이 급증하였음.
- 2003년에 들어서면서는 일본 주식시장의 회복세와 은행 창구판매 개시로 자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 3월에는 2002년말 대비 7배 규모에 이름.
 - 2000년 11월까지의 변액연금 판매회사는 5개사였으나, 그 후 판매회사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 10월 은행 창구판매 개시를 계기로 전체 21개 생보사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림 2> 일본 주식시장과 변액연금보험



- 향후 일본의 변액연금 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⁴⁾.
 - 첫째, 고령화 진행중 저금리, 공적·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불안 등으로 퇴직후의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
 - 둘째, 상속대책, 퇴직후의 자산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
 - 셋째,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개인금융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 넷째, 은행·증권회사가 현재 변액연금의 취급, 판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 등임.
- 일본의 변액보험 시장은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금융시장 여건 외에 소비자 니즈가 충분히 반영된 상품개발 및 재무 측면에서의 신뢰성 등이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여짐.
 - 즉, 위험분산기능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견조한 자산운용능력을 겸비한 외국사와 상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을 볼 때, 변액연금상품의 기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라. 우리나라의 도입 사례와 현황

아직 도입초기인 우리나라 변액보험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형사 및 일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95% 이상으로 극심한 시장 편중 현상

<변액연금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시장은 2001년 7월 변액종신보험이 판매되기 시작된 이후 약 3년 2개월이 지났으며, 2002년 10월 변액연금, 2003년 7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출시되었음.
 - 2004년 1월 5일 이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험회사는 보험업
- 4) 保險毎日新聞, “日本變額年金保險の現況と展望”, 2004.4.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변액연금 시장은 2010년말 자산잔고액 기준으로 30조~50조엔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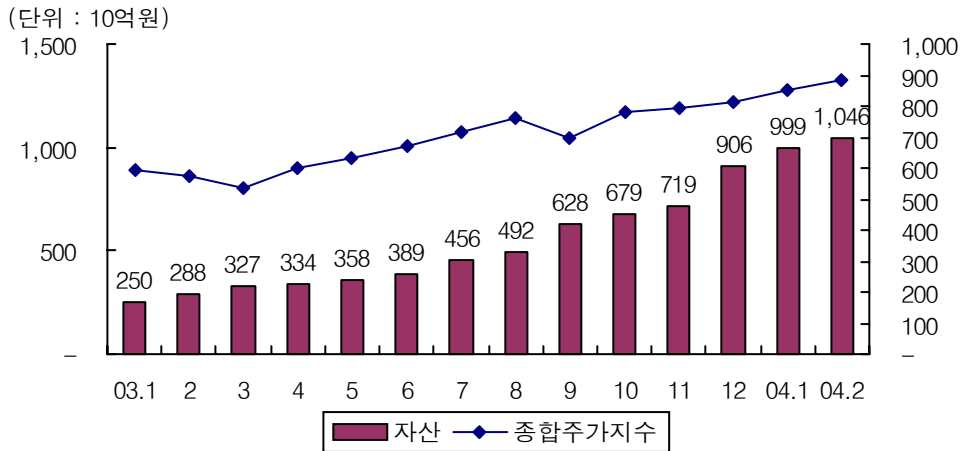
법에 의한 상품인가를 받을 경우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음.

- o 그러나 동 법 시행후에는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2개 외국사가 자산운용업겸영의 허가를 득하여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 상품형태로는 변액종신보험에 대해선 최저보증사망보험금(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이 기본계약에 포함(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율은 없음)되며 연 4회 펀드변경이 가능함.
- o 또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도 연금개시전 기납입보험료가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기본적립금으로 보장되며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연 3%최저보증)로 연금지급이 이루어짐.
-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소득공제와 10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음.
- o 2004년 5월 현재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ING생명, PCA생명이 자산운용업겸영 허가를 받음에 따라 총14개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변액연금 판매현황>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방카슈랑스가 시작된 2003년 9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3년 12월 최대 1,728억 원을 기록한 후 2004년 2월 현재 월간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4.3% 성장한 610억원이었음.
- o 변액보험 누적자산은 2003년 9월 이후 증가하여 6,277억원을 넘어서면서 2004년 2월 현재 1조 464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263.5% 성장함.
- o 변액연금보험자산과 주식시장과의 관계는 도입초기로서 강력한 추세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변액자산은 318%, 종합주가지수는 49% 성장해 종합주가의 상승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

<그림 3>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변액연금보험



- 회사그룹별 변액보험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7월 대형 3사의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92.4%이었으나 일부 외국사의 선전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외국사는 2004년 1월 최고 30%에 이르렀다가 2004년 2월 23.0%를 차지, 일반 보험시장보다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그러나 여전히 대형사와 일부 외국사에 의해 시장의 95%이상을 차지하는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1> 회사그룹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

구분	03.7	03.8	03.9	03.10	03.11	03.12	04.1	04.2
대형3사	92.4%	92.1%	85.9%	78.0%	80.3%	82.0%	70.2%	76.7%
중소형사	0.0%	0.0%	0.1%	0.3%	0.4%	0.1%	0.1%	0.3%
외국사	7.6%	7.9%	10.4%	8.5%	11.7%	8.7%	29.6%	23.0%

- 변액보험 자산 역시 회사별로 대형 3사와 일부 외국사가 전체의 83.8%를 차지하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변액보험보다 1년 3개월 늦게 출시된 변액연금보험이 60.5%를 차지하면서 최근 변액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지난해에 도입된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기존 변액보험에 자유로운 인출과 펀드변경기회를 제공하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사들과 대형 3사들이 우선적으로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임.

<표 2> 보험회사별 변액보험 자산 현황(2004년 2월)>

(단위 : 억원)

회사명	변액연금	변액종신	합 계
삼성생명	2,727	1,131	3,858
교보생명	1,753	1,143	2,896
대한생명	388	558	946
금호생명	102	-	102
동양생명	155	-	155
신한생명	161	169	330
홍국생명	160	106	266
SK생명	42	64	106
메트라이프생명	299	775	1,074
알리안츠생명	50	-	50
푸르덴셜생명	-	185	185
SH&C생명	496	-	496
합 계	6,333	4,131	10,464

- 변액보험자산은 특별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운용주체로는 자체운용,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통한 자체운용, 외부위탁운용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형태로는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단기채권형 등이 있음.
- 펀드별 수익률(연환산수익률)은 6월 2일 현재 채권형이 평균 4.6%, 혼합형이 7.5%, 기타펀드 4.0%를 보이고 있으며, 펀드별로는 최고 21.8%, 최저 -3.7%를 나타냈음.

마. 시사점

향후 변액보험 시장은 금융·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있는 반면, 주식시장 불안정이 단기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상품 개발, 재무능력 확보, 방카슈랑스 채널 활용 및 전문 채널 육성 필요

- 우리나라 변액보험 시장은 저금리 기조 및 방카슈랑스 도입 등의 금융·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수요 증가, 저금리 시대에 적절한 수익성 보장의 어려움,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향후 연금 판매채널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임.
 - 반면, 2003년의 경우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심해 단기적으로 변액연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변액연금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례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변액연금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고객의 리스크관리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상품다양성과 자산운용의 신뢰성 확보 등 내부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미국의 다양한 상품 개발, 일본의 자산운용 아웃소싱 등과 같이 투자성향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액연금상품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변액연금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최근 주식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먼저 투자상품으로서 변액연금상품에 다양한 옵션개발과 펀드개발 및 운영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장변화에 대응해야 함.
 - 둘째, 강력한 재무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관리능력과 펀드관리 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미국의 상위사들과 일본에 진출한 외국사들처럼 건전한 재무적 능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선진 펀드운용으로 변액연금시장을 이끌어가는 등 리스크의 적절한 분산으로 고객의 다양한 위험분산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o 셋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등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변액보험에 적합한 전문 판매채널을 육성하도록 함.
-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은행창구판매를 통한 변액보험 시장이 확대되었음을 감안할 때, 변액보험의 투자 성격을 고려하여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 확대 등 은행 채널 활용을 통한 판매가 효과적일 것임.
- 단, 은행의 보험자회사를 포함한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전문 판매조직의 양성 등이 요구됨.

** 자료 : 保險毎日新聞, “日美變額年金保險の現況と展望-上, 美國”, 2004.4.8
 保險毎日新聞, “日美變額年金保險の現況と展望-下, 日本”, 2004.4.9

(김진익 선임연구원, 조혜원 선임연구원)

2. 미국 동향

<입법관련 동향>

소비자사생활보호법,

반스팸메일법등
전자상거래
관련법 마련

□ 전자상거래(e-commerce)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와 스팸메일관련 문제

○ 과학교통상원위원회의 원로 상원위원인 Ernest Hollings는 2002년 4월 생명보험회사들의 핵심적 사업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온라인개인사생활법안을 도입했으나 현재는 기존의 연방사생활법을 유지하는 소비자사생활보호법이 상정되어 있음.

○ 반스팸메일법(H.R. 1017)은 위장 또는 사기적으로 생성되고 유포되는 정보를 담은 전자메일발송을 금지하고 있음.

생보사의
연방규제,
테러리스크,
반자금세탁법
관련법 마련

□ 금융서비스규제 : 규제개혁, 테러리스크, 그리고 미국 패트리엇법

○ 생명보험업계는 단일한 연방규제를 희망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을 위한 선택적 연방특권을 인정하는 연방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02년 11월 승인된 재물/책임보험사업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법안은 재무성으로 하여금 단체생명보험산업에 대한 테러의 영향을 즉시 검사할 것과 심할 경우 지원프로그램에 단체보험을 포함시킬 것을 연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패트리엇법은 특히 외국인과 외국금융기관에 의한 범죄에 대해 반자금세탁법을 강화하였으며 이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반자금세탁규준을 만들고 실천토록 하고 있음.

□ 국제 :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협상

○ 미국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무역에 있어 여러 해 동안 흑자를 보았으며 이는 전체 무역적자와 상계되었음.

- 미국 보험업계는 미무역대표부를 통해 WTO회원국에 자국의 이행일정보델을 요청했으며, 이 모델은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그리고 호주의 선도적 보험협회들에 의해 채택되었음.

**집단소송을
연방법정으로
일원화**

□ 집단소송 : 집단행동개혁

- 여러 주에 걸치는 집단행동소송을 연방법정으로 일원화하는 집단소송개혁법안이 지속적으로 상정되었으며 107차 의회에서 하원은 초당적 지지로 집단행동개혁법을 통과시켰음.

□ 개인정보보호 : 금융정보, 의료정보, 사회보장번호

- 107차 국회에서 도입된 몇몇 법안들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
- 공정신용보고법은 108차 국회의 의제이며, 이러한 토의결과는 현재의 금융사생활법에 반영될 것임.
- 1996년 건강보험이동성과 수탁가능성에 관한 법은 건강과 인간서비스(Health and Human Service, HHS)에 건강정보보호를 관장하는 규제안을 개발토록 했으며 법률안은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얻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함.
- 최근의 개정된 규정은 보험사업기능을 위한 합법적 개인건강정보의 획득을 보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종양식이 2002년 8월 발간되었음.
- 107차 국회에서 제시된 많은 법들은 정상적 기업기능을 위한 사회보장번호의 이용을 위협하는 조항들을 포함함.

**세율조정을
통한 연금지원**

□ 퇴직보장 : 연금, 투자자문, 장기간병보험, 그리고 연금개혁

- 107차 국회에서 도입된 종신연금지급법(L.A.P.)은 종신연금지급에 대해 소득세율이 아닌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며 108차 국회에 재상정될 것이 예상됨.

- 퇴직보장자문법(H.R. 2269)이 2001년 11월 양당투표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2년 3월 보완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었으며 2002년 4월 행정부의 지지로 하원을 통과함.
- 지난 여러 회기에 걸쳐 막대한 장기간병비용으로부터 중산층 퇴직저축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꾸준히 상정됨.
- 퇴직시 재무적인 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지도록 사적인 고용주지원 퇴직소득제도를 강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2002년 10월 미국저축보호법(H.R. 5553)이 상정되었음.

□ 과세 : 기업생명보험, 결합세금신고, 그리고 내국세법 제809항과 815항의 폐지

**보험회사에
차별적인
세금신고 및
법규정개선
추구**

- 기업생명보험은 모든 주에서 규제되며 상품구매자와 보장범위에 대한 규제가 연방법이 아닌 주보험법에 의해 규제됨.
- 전국보험감독관회는 2002년 12월 새로운 모델지침을 발간했으며 기업생명보험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적절성검증을 위해 주기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됨.
-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에 대해서 결합세금신고가 허용되지만 생·손보사를 포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결합세금신고에 대한 규정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기업들과 다르게 과세되면서 제도화됨.
- 현재 보험회사들은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되며 결합신고제한은 더 이상 적절치 않음.
-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다른 금융회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기에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107차 국회의 양원에 제안되었으며 광범위한 세금간소화법에도 포함되었음.

**보험회사에
차별적인
세금신고 및
법규정개선
추구**

- o 1984년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상호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배당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809조와 보험계약자이익잉여금에 적용되는 815조는 여전히 생명보험회사에만 적용됨.
- o 809조는 널리 이론적 기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경기하강기의 악영향으로 107차 국회에서 제정된 경제촉진법안의 일부로 3년동안 정지되었음.
- o 815조는 1959년 생명보험과세구조를 재구성하는 일부로 제정되었으며 의회는 1984년 보험주식회사와 상호보험회사의 보험소득과 투자소득 모두를 과세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세법을 개정했음.
- o 815조는 1984년 제정된 총소득개념에서는 무의미하며 1990년 모든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대규모의 신계약비를 포함시키며 발전되었음.

* 자료 : ACLI(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행정관련 동향 : 보험규제의 현대화와 효율성>

**보험규제의
현대화 및
효율화**

- ☐ 미국 보험업계에는 연방차원과 주차원의 보험규제의 현대화 및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o 보험규제체제의 현대화와 효율화는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 관심사임.
 - ☐ 보험업과 경쟁하는 은행업과 증권 산업이 연방수준에서 규제되는 것과 달리 보험은 거의 독점적으로 주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들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① 50개 모든 주에서 면허를 받아야 함.

단일
규제체제 마련
을 통한
규제개선노력

- ② 각 신상품에 대해 50개 이상의 별개의 승인을 얻어야함.
- ③ 매년 50건 이상의 시장실태검사를 받아야 함.
- ④ 50건 이상의 행정 및 규제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이러한 체제는 중개업, 뮤추얼펀드, 그리고 상업은행이 단일 연방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것임.
- 단일의 공통 규제체제 없이는 적시에 시장에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는 생명보험회사의 능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산업통합, 세계화, 전자상거래의 도래, 금융서비스통합의 가속화에 따라 신속하고 대규모의 규제개혁이 요구됨.
- 미국 생보업계는 보험규제개선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
- 주 차원에서는 전미보험감독관회(NAIC)와 함께 현재의 주정부 기반 생명보험규제체제를 개선하고 있음.
- 연방차원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게 선택적 연방특허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정함.

* 자료 : ACLI(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김진익 선임연구원)

3. EU 동향

<2003년 영국 보험시장 동향>

2003년
영국생보시장,
생사혼합보험
감소와 불완전
판매에
기인하여
1.7%의
마이너스 성장

- 2003년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2002년에 비해 1.7% 감소한 12억 9천만 파운드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이유는 생사혼합보험의 감소와 불완전판매 때문임.
 - 모기지 붐으로 인해 정기보험이 생사혼합보험을 대체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시장은 대형 자동차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성장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한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보험시장이 연성화됨에 따라 가입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증가하고 있음.
 - Mori데이터에 의하면, 고객이탈율이 1999년 27.6%에서 2003년 20.6%로 하락하여 고객충성도와 유지율이 향상되었음.
 -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은 2001년 63.8%에서 2002년 65.3%로 1.5%p 상승함.

직역연금시장,
마이너스
성장요인은
회계기준변경,
일부
직역연금기구
해체

- 2003년 직역연금에 가입한 회사의 수가 2002년에 비해 6% 감소하였음.
 - OPRA에 의하면 FY2002년 말에 100,000개사에서 2004년 4월 31일 현재 94,000개사로 감소함.
 - 회계기준 FFS17 변경으로 인해 직역연금이 회사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사들은 직역연금에서 탈퇴하고 있음.
 - 직장인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니드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직역연금시장이 감소한 직접적인 주요 이유는 퇴직금이 상당히 축소된 60,000명의 직장인이 가입된 직종별 연금기구의 해체 때문임.

〈EU 주요국의 연금개혁 소개〉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EU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고령화는 연금비용을 증가시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EU 주요국의 연금제도는 강제연금(compulsory pension saving), 직역연금(voluntary occupational pension saving), 개인연금(voluntary personal pension saving), 기초생활보장연금("safety-net" pen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 : 연금개혁은 직역연금의 안정성 제고

- 영국의 공적연금제도(Compulsory Pension Saving)는 부과방식(PAYG: pay as you go basis)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s of previous earnings)은 38%수준이며, 보험료납입기간은 44년이 소요됨.
- 저소득층의 연금수급비율은 EU 평균과 같은 12% 수준임.
- 근로자의 40%가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12%는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음.
- 연금시장집중도는 EU 평균보다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개사가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음.
- 상위 5개사는 British-Halifax, Norwich Union, Barclays Life, Prudential and Standard Life로 각각 비슷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판매채널별 점유율은 IFA(70%), 은행(8%) 순으로 나타남.
-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는 사적 부문의 확정급부형 직역연금기구가 파산하지 않도록 새로운 건전성 원칙과 보상펀드(compensation fund)를 도입하여 직역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임.
- 또한 정부는 세제제도를 단순화하여 고용주나 잠재적 연금관리자의 연금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2003년에 연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독일 :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축소,
보험료납입한
도 제한

-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부과방식(PAYG)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수준이며, 보험료납입기간은 45년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연금수급비율은 6%수준으로 EU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연금시장집중도는 중규모의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 5개사가 EU 평균 50%보다 낮은 31%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Allianz가 연금시장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판매채널별 점유율은 전속대리점(54%), IFA(20%), 은행(18%) 순으로 나타남.
- 정부는 리에스터(Riester)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3.5%수준으로 낮추고, 보험료납입한도도 급여의 20~22% 수준으로 제한함.
 - 또한 203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5%수준으로 낮추면서 추가적 직역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메울 계획임.

**프랑스 :
연금개혁은
연금급부수준
과 생존기간
연계**

-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부과방식(PAYG)으로 운영되며, 출구세제(EET) 방식에 의한 개인연금은 2004년 5월부터 시행됨.
 -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 수준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37~40년 정도 소요됨.
 - 저소득층의 연금수급비율은 EU 평균 12%보다 낮은 10%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연금시장구조는 EU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상위 5개사 중 CNP, Axa는 시장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판매채널별 점유율은 은행(60%), 직판(16%), IFA/브로커(10%), 전속대리점(8%) 순으로 나타남.
-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연금급부수준과 생존기간을 연계한 것임.
 - 현재 연금급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 납입기간이 37~40년에서 2012년 41년, 2020년에는 42년이 필요함.

**이탈리아 :
연금개혁은
부과방식에서
확정각출형방
식으로 전환**

- 이탈리아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존의 부과방식에서 확정각출형방식(Na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수준이며, 보험료납입기간은 35년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연금수급비율은 8%수준으로 EU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연금시장집중도는 EU의 평균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기타 주요 회사들이 5%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enerali 는 2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판매채널별 점유율은 은행(50%), 전속대리점(25%),순으로 나타남.
- 연금개혁은 부과방식에서 확정각출형방식(Na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면서 연금지출 비중을 현재 GDP의 13.8%에서 향후 30년 동안 1~2% 수준의 증가로 제한하는 것임.

스페인 :
연금개혁은
연금급부인하
보험료납입기
간 연장

- 스페인의 공적연금제도는 부과방식(PAYG)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5%수준이며, 보험료납입기간은 35년 정도 소요됨.
 - 저소득층의 연금수급비율은 EU 15개국 평균 12% 보다 낮은 7% 정도 수준임.
- 연금시장집중도는 EU 평균보다는 낮으며, 상위 5개사가 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음.
 - 판매채널별 점유율은 은행(75%), 전속대리점(14%) 순으로 나타남.
- 연금개혁은 연금급부수준 인하와 보험료 납입기간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현재의 연금급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시킬 필요가 있음.
 - 2013년부터는 연금보험료와 연금급부가 연계됨으로써 일반 세제를 통해 교차 지원하는 효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임.

** 자료 : ABI, "European Pension Reform and Private Pensions: An Analysis of the EU's Six Largest Countries(2004.5)", www.abi.org.uk

(신동현 연구원)

4. 일본 동향

<FY2003 보험회사 결산자료 발표>

일본 보험회사,
FY2003
재무여건은
개선된 반면,
보험영업 부문
침체

- FY2003 일본 보험회사의 결산자료 발표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으로 재무상황이 개선된 반면, 보험영업 부문의 장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계 생보사는 연금보험 판매 호조로 수입보험료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손해보험회사는 일본의 금융분야 중에서도 견고한 재무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업계 전체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침체 상태에 있음.
 -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및 사스(SARS)로 인한 해외여행 보험 실적 저조 등으로 전체 보험영업실적에 타격을 입음.

생명보험
보유계약고 총액,
전년 대비 5.6%
감소

-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고 총액은 ① 작년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 ② 디플레이션 지속 및 가계지출 축소로 보험계약 감소 경향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6% 감소하여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 반면, 주식시장 회복으로 보유 국내주식의 평가익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향상되는 등 재무상황이 개선됨.
 - 한편, 일본내 외국계 생보사 실적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호조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신규계약고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견고한 재무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순수입보험료가 침체상태에 있는 실정임.
-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및 사스 발생 여파로 전체 수입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회사별로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감소로
보험영업이익
저조

소폭 증가한 정도에 그쳤음.

- o Millea사의 경우, 보험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0.3% 감소한 1.75조엔을 기록하였으며, Sompo Japan사의 보험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25억엔을, Mitsui Sumitomo는 1.5% 증가한 1.20조엔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상위 6개 손보사 중에서 Millea, Mitui Sumitomo, Aioi Insurance에서는 증가하였고, Nipponkoa Insurance, Nissay Dowa General Insurance, Sompo Japan Insurance는 흑자로 전환되었음.

- o Millea사는 전년 대비 6.7% 상승한 1,164.6억엔, Mitsui Sumitomo는 125.4% 증가한 729.6억엔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었으며, Sompo Japan은 전년도 269.5억엔 적자에서 벗어나 641.7억엔으로 흑자를 기록함.

* 자료 : Kyoto News International, <http://www.kyotonews.com>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계획에 따른 검토〉

일본,
방카슈랑스
2007년 4월
전면 허용 예정

□ 금융심의회는 3월 31일 보험상품의 은행창구판매를 2007년 4월 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전면 허용시기에 대해 “늦어도”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앞당길 수도 있음을 시사함.

- o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금융청에서는 “은행 대출과 연계된 압력판매에 의한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금융청은 금융심의회 검토를 토대로 방카슈랑스 허용의 진행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사무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허용하는 일부 상품을 명시할 계획임.

- o 현 단계에서는 저축성 일시납 양로보험 등이 유력하며 내년도 허용 예정임.

- 일본의 방카슈랑스는 2001년 4월부터 주택론과 연계된 신용생명보험, 장기화재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을, 2002년 4월 개인연금보험, 재해보험, 연금불적립상해보험, 재형상해보험 등 2단계에 걸쳐 손보·생보상품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음.
- 은행 입장에서는 종래의 대출업무와 달리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보험판매를 추진하는 메리트는 충분함.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영업직원 채널과 비교하여 은행 채널은 비교적 낮은 비용의 채널로서, 보험회사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됨.

**은행 실정에
적합한
판매상품 결정
및 리스크에
대한 분석 필요**

- 은행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허용에 대해서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은행에 따라서는 우수한 상품성, 가격 우위성, 창구판매력(프론트력), 수익성 측면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권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요소들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은행별로 리스크 허용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임.

**방카슈랑스
상품과 기존채널
상품간의 전략적
판매가 보험회사
성공의 관건**

-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만 이익이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채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경쟁체제는 다양화되고, 상품가격에의 영향도 발생하게 되며, 코스트 구조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은행을 경유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기존 판매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인수하는가가 경영과제가 될 것임.

* 자료 : 保險毎日新聞, “銀行窓販の保険業界への影響”, 2004.4.19.

<자연재해리스크 대응을 위한 책임준비금제도 검토>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

-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이상기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1970년~2002년에 세계 자연재해에 의한 보험금 지급액의 상위 36건 중 30건이 1987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대재해는 최근에 집중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위치, 지형, 지질, 기상 등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태풍, 호우, 화산분화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풍수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의 상위 10건중 9건이 1990년 이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자연재해 발생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자연재해 위험
담보 보험상품
판매 확대 및
장기계약 증가**

- 일본 손해보험에서 자연재해위험 담보 상품은 1984년 도입된 주택화재보험, 보통화재보험(일반·공장)의 풍재(風災)·우박·설재(雪災) 담보 및 지진재해비용보험 등이 있음.
 - 1998년 요율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사가 독자적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더욱이 일본 특유의 경향으로서 장기계약 계약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화재보험의 주택물건의 경우 2002년도말 보험기간 4년 이상의 보유계약이 계약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56%, 보유보험금액은 전체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상품이 확대되는 경향이며 자연재해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의 보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 및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응하기 위한 부채인 책임준비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 비상위험준비금은 보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보통책임준비금과 달리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임.

**자연재해리스크
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립금액 인상**

- 비상위험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 상한액을 과거 최대 태풍이 다시 발생할 경우의 예상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매기 이월액의 최저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005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대폭
증가 예정**

- 최근 손해보험 각사는 2005년부터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비하는 준비금을 대폭 증가시키기로 함.
- 현재 업계 전체 약 8,000억엔을 적립하고 있지만, 6,000~7,000억엔을 추가로 적립하기로 함.
- 화재보험 등 경쟁심화로 보상범위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함임.
- 단, 몇몇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적립으로 수익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자료 : 保険毎日新聞, “自然災害リスク對應のための責任準備金制度の検討”, 2004.4.6.

(조혜원 선임연구원)

5. 중국 동향

<2003년 방카슈랑스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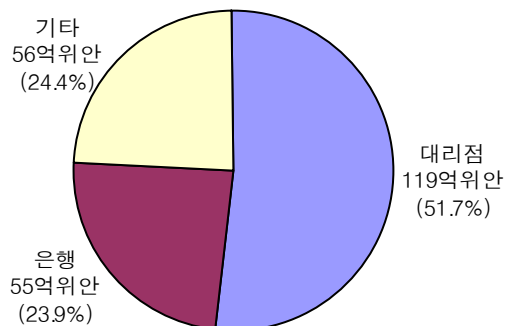
2003년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혼재

- 중국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혼합경영이라는 세계 금융시장의 추세가 자리잡고 있음.
 - 2003년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에서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났음.
-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에서의 긍정적 요인으로서는 ① 여러 은행과 동시에 다자간 협력관계를 체결하였다는 점과 ② 다양한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이 등장하였다는 것임.
 - 2003년 개정된 보험법에 시행되면서 중국에서의 방카슈랑스는 ‘多對多’ 형태, 즉 하나의 은행이 다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보험회사가 다수의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은행이 주도권을 갖는 1:1 형태에서 多對多 형태로 바뀌면서 방카슈랑스 주도권이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분위기임.
- 부정적 요인은 ① 방카슈랑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지점 숫자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방카슈랑스형 보험상품이 기존의 ‘투자연동형’에서 ‘보장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임.
 - 중국에서의 방카슈랑스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과 개별적으로 방카슈랑스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짐.
 - 중국 방카슈랑스를 통해서는 단순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개인성 손해보험 상품 등이 판매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상해보험, 건강보험, 소득보상보험, 주택론보증보험 등 ‘보장형’ 상품 판매로 전환되고 있음.

방카슈랑스,
전체
수입보험료의
21% 점유,
국내 생보사의
비중이 높은 편

- 2003년 중국의 방카슈랑스는 전체 보험시장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수입보험료 3,880억위안(생보 3,011억위안, 손보 869억위안) 중에 816억위안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거두어짐.
- 보험회사별, 채널별 수입보험료 실적을 보면, 상해지역(중국 생보시장의 7.6% 차지)의 경우 생명보험의 23.9%가 은행을 통해 판매되었음.
 - 방카슈랑스 판매의 상당부분을 중국내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점유하는 한편,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판매의 70% 이상을 방카슈랑스가 차지함.
- 회사별 방카슈랑스 점유율을 보면, PingAn(中國平安保險公司), China Life, CPIC(中國太平洋人壽保險公司), Taiping(太平人壽保險公司) 등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이 높은 편임.
- 또한, Taikang, New China Life, Taiping, Haier New York Life 등의 회사는 회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70%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등 방카슈랑스가 주요 판매채널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1> 생명보험 채널별 수입보험료 점유율(2003년, 상해)



<표 1> 보험회사별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현황(2003년, 상해)

(단위 : 백만원)

구분	방카슈랑스		전체	방카슈랑스
	보험료(A)	구성비	보험료(B)	점유율(A/B)
PingAn	1538.68	27.97%	8075.35	19%
CPCI	701.04	12.74%	2036.80	34%
China Life	796.05	14.47%	6729.98	12%
AIA	30.81	0.56%	1669.30	2%
CPIC-ING	103.37	1.88%	608.96	17%
Manulife-sinochen	-	0.00%	475.78	0%
AXA-minmetals	0.37	0.01%	119.00	0%
Allianz Dazhong	11.81	0.21%	166.55	7%
Taikang	436.63	7.94%	644.69	68%
John Hancock	0.39	0.01%	46.42	1%
CMG-China Life	1.25	0.02%	39.48	3%
New China Life	872.44	15.86%	1089.89	80%
Taiping	947.92	17.23%	1211.00	78%
Haire New York Life	59.25	1.08%	81.96	72%
Aegon-CNOOC	1.51	0.03%	6.01	25%
Total	5501.53	100.00%	23001.16	24%

* 자료 :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Dec. 2003.
Shanghai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Dec. 2003.

(조혜원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7.5	3.7	2.2	2.4	3.9	5.3
경상수지	1,876	-1,524	2,426	3,758	7,661	6,146
수 출	45,307	43,036	46,053	47,828	56,901	18,999
수 입	42,262	44,223	41,711	42,971	49,922	16,122
실업률	2.9	3.6	3.3	3.3	3.4	3.8
금리	국고채(3년)	5.11	4.62	4.16	4.11	4.82
	회사채(3년)	5.68	5.38	5.46	5.05	5.58
소비자물가지수	107.9	109.8	110.5	110.8	111.7	113.4
환율	원/달러	1,186.20	1,254.60	1,193.00	1,150.10	1,192.6
	엔/달러	118.52	119.935	119.74	111.79	106.99
종합주가지수	627.55	535.70	669.93	697.52	810.71	873.46
외환보유고	121,413	123,825	131,660	141,535	155,352	163,557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4/4	1/4	2/4	3/4	4/4	1/4
보 험	76,573	45,805	50,356	47,189	88,743	48,649
생명보험	62,076	30,629	34,893	34,893	74,824	37,604
손해보험	14,497	15,176	15,443	12,296	13,919	11,045
은 행	138,510	23,484	73,895	-30,594	189,814	-67,109
일반계정	140,221	45,937	144,380	1,512	221,476	-11,707
신탁계정	-1,711	-22,453	-70,485	-32,106	-31,662	-55,402
증 권	-2,879	35,535	-2,503	-6,525	5,843	-5,145
투 신	-2,159	-80,618	-90,539	63,286	-178,020	170,435
중 금	-2,463	24,512	-61,400	-21,375	-38,056	-55,402

주 : 1) 보험회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보험료	24,311	91,424	23,901	26,555	37,028	28,192	115,676
	성장률	19.0	22.0	11.8	20.0	56.8	16.0	26.5
	구성비	21.0	18.6	21.0	23.1	23.9	23.4	23.0
사망보험	보험료	54,756	211,701	55,609	55,989	57,714	60,047	229,359
	성장률	15.1	21.4	10.5	6.3	7.0	9.7	8.3
	구성비	47.3	43.1	48.8	48.8	37.3	49.9	45.5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26,959	110,392	23,465	22,985	26,139	21,916	94,505
	성장률	-10.7	-14.1	-15.2	-14.5	-9.5	-18.7	-14.4
	구성비	23.3	22.5	20.6	20.0	16.9	18.2	18.8
변액보험	보험료	1,059	1,976	920	1,136	3,210	2,356	7,621
	성장률	-	-	887	682.7	372.6	122.5	285.7
	구성비	0.9	0.4	0.8	1.0	2.1	2.0	1.5
개인보험계	보험료	107,084	415,493	103,895	106,665	124,091	112,510	447,161
	성장률	9.0	10.0	4.4	4.8	15.8	5.1	7.6
	구성비	92.6	84.7	91.1	92.9	80.1	93.6	88.7
단체보험	보험료	8,613	75,175	10,108	8,094	30,836	7,725	56,764
	성장률	-35.9	-21.6	-37.3	-33.1	-19.6	-10.3	-24.5
	구성비	7.5	15.3	8.9	7.1	19.9	6.4	11.3
전체	보험료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성장률	3.6	3.6	-1.4	0.7	6.5	3.9	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6,439	52,624	13,605	13,687	15,399	17,556	60,247
	증가율	12.1	-18.9	18.6	12.7	22.9	6.8	14.5
	지급률	67.6	57.6	55.9	51.5	41.6	62.3	52.1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15,891	55,377	16,782	17,795	19,077	20,773	74,428
	증가율	46.4	19.8	44.3	30.2	34.7	30.7	34.4
	지급률	28.5	25.9	30.0	31.8	33.1	34.6	32.5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35,355	104,155	33,347	31,324	28,627	26,875	120,173
	증가율	39.8	-10.4	53.1	40.0	16.1	-24.0	15.4
	지급률	131.1	94.4	142.1	136.3	109.5	122.6	127.2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3	42	70	106	206	324	706
	증가율	-	-	4886	3143	757	2382	1589
	지급률	2.1	1.2	7.6	9.3	6.4	13.7	9.3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67,698	212,197	63,805	62,911	63,310	65,528	255,554
	증가율	33.2	-6.6	42.0	30.6	23.2	-3.2	20.4
	지급률	63.2	51.1	61.4	59.0	51.0	58.2	57.2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7,369	81,983	15,306	12,639	16,793	17,103	61,840
	증가율	10.7	-29.5	-20.1	-12.5	-45.8	-1.5	-24.6
	지급률	201.3	109.1	151.4	156.2	54.5	221.4	108.9
전체	지급보험금	85,067	294,181	79,111	75,550	80,103	82,631	317,394
	증가율	27.9	-14.4	23.4	20.6	-2.8	-2.9	7.9
	지급률	73.5	60.0	69.4	65.8	51.7	68.7	63.0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 명 보험	사업비	3,586	14,145	3,098	3,269	4,187	3,564	14,118
	증가율	-3.9	21.3	-8.4	-2.1	9.1	-0.6	-0.2
	사업비율	14.8	15.5	13.0	12.3	11.3	12.6	12.2
사 보 보험	사업비	15,208	60,359	14,523	14,764	15,913	16,504	61,705
	증가율	8.8	13.7	3.4	-2.9	0.1	8.5	2.2
	사업비율	27.2	28.5	26.1	26.4	27.6	27.5	26.9
생사혼합 보험	사업비	1,877	8,119	1,712	1,739	2,188	2,009	7,647
	증가율	-21.8	-27.3	-14.1	-9.6	-6.0	7.0	-5.8
	사업비율	7.0	7.4	7.3	7.6	8.4	9.2	8.1
변 액 보험	사업비	-	-	-	-	-	-	-
	증가율	-	-	-	-	-	-	-
	사업비율	-	-	-	-	-	-	-
개 인 보험계	사업비	20,671	82,623	19,333	19,773	22,288	22,077	83,470
	증가율	2.8	8.8	-0.5	-3.4	1.0	6.8	1.0
	사업비율	19.3	19.9	18.6	18.5	18.0	19.6	18.7
단 체 보험계	사업비	736	2,568	61.4	653	714	750	2,732
	증가율	39.7	12.6	7.3	16.4	2.2	1.9	6.4
	사업비율	8.5	3.4	6.1	8.1	2.3	9.7	4.8
전 체	사업비	21,407	85,191	19,947	20,426	23,002	22,827	86,202
	증가율	3.8	8.9	-0.3	-2.9	1.1	6.6	1.2
	사업비율	18.5	17.4	17.5	17.8	14.8	19.0	17.1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50	3,219	825	761	881	692	3,160
	성장률	7.4	6.1	2.5	0.9	-3.1	-7.7	-1.8
	구성비	1.5	1.6	1.6	1.4	1.5	1.3	1.5
해 상	보험료	1,418	5,605	1,396	1,385	1,151	1,310	5,242
	성장률	1.1	5.9	-7.3	-0.2	-11.0	-7.6	-6.5
	구성비	2.8	2.7	2.7	2.6	2.0	2.5	2.5
자동차	보험료	18,358	79,138	18,939	20,662	20,311	19,693	79,606
	성장률	1.9	6.1	-2.0	-1.2	-1.1	7.3	0.6
	구성비	36.7	38.4	37.0	39.2	35.7	37.2	37.2
보 증	보험료	2,530	9,362	2,423	2,261	2,259	2,475	9,419
	성장률	29.5	30.8	11.0	1.2	-6.4	-2.2	0.6
	구성비	5.1	4.5	4.7	4.3	4.0	4.7	4.4
특 종	보험료	3,472	16,734	4,546	4,454	5,140	3,933	18,073
	성장률	11.6	20.6	5.7	3.1	10.7	13.3	8.0
	구성비	6.9	8.1	8.9	8.4	9.0	7.4	8.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3	564	137	155	163	173	628
	성장률	-1.8	12.3	-4.6	27.3	11.9	13.3	11.4
	구성비	0.3	0.3	0.3	0.3	0.3	0.3	0.3
장 기	보험료	20,783	80,134	20,871	20,996	21,801	22,126	85,794
	성장률	7.8	10.0	8.1	6.5	7.2	6.5	7.1
	구성비	41.5	38.9	40.8	39.8	38.3	41.8	40.1
개 인 연 금	보험료	1,740	6,786	1,704	1,705	1,716	1,748	6,873
	성장률	4.8	1.6	2.6	1.3	0.9	0.4	1.3
	구성비	3.5	3.3	3.3	3.2	3.0	3.3	3.2
퇴 직 보 험	보험료	879	4,401	322	388	3,488	751	4,949
	성장률	127.3	53.6	24.7	37.6	17.0	-14.6	12.4
	구성비	1.8	2.1	0.6	0.7	6.1	1.4	2.3
계	보험료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성장률	7.4	10.2	3.4	2.6	3.6	5.6	3.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4.3	62.7	63.9	61.6	61.7
	사업비율	51.4	48.4	47.1	48.4	56.0
	합산비율	105.6	111.1	111.0	110.0	117.7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1.6	45.7	53.6	57.4	57.7
	사업비율	32.7	35.0	30.4	34.2	36.4
	합산비율	84.4	80.7	84.0	91.6	94.1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8.4	72.9	74.8	75.8	76.7
	사업비율	32.2	29.7	30.3	30.9	31.3
	합산비율	100.6	102.7	105.1	106.7	108.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2.0	33.8	10.1	23.8	44.1
	사업비율	7.0	5.6	7.3	7.7	10.3
	합산비율	49.1	39.4	17.4	31.5	54.4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7.5	43.1	50.9	51.0	57.8
	사업비율	23.6	25.1	23.4	23.4	23.2
	합산비율	71.1	68.2	74.3	74.5	80.9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0.4	46.5	47.7	48.5	47.5
	사업비율	53.0	54.1	76.9	76.4	80.5
	합산비율	103.4	100.6	124.6	124.9	127.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5	80.9	80.5	81.3	72.4
	사업비율	21.7	22.3	22.8	21.4	19.4
	합산비율	103.2	103.2	103.3	102.7	101.9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8.7	114.6	115.6	116.1	121.8
	사업비율	11.2	11.0	10.9	10.5	9.7
	합산비율	129.9	125.6	126.5	126.7	131.5
전 체	경과손해율	72.9	73.7	73.8	75.2	77.6
	사업비율	25.5	24.7	25.2	24.8	24.3
	합산비율	98.4	98.4	99.0	100.1	101.9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처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키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3-7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
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
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검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2 보험회사의 방키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6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도서관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관 담당

전화 : 368-4230, 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4년 여름호(통권 30호)

2004년 7월 5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